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 인물] 내 꿈은 뮤지션! 진주중앙고 2학년 민현정
- ▶◀ [청소년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주락사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여론과 달리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알바 상식은?
- ▶◀ [학교소식] 경남 학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
경상대 사대부고 박수연 또래상담자 공모전 대상
KBS 도전골든벨 선명여고 최후 1인, 골든벨 좌절
명석중, 전국 환경등아리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경남정보고,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은상
- ✕ [맛강년맛반] 대야고등학교 2학년 5반편
- ✕ [맛강년맛반-심청] 경해여자고등학교 1학년 4반편
- ✕ [19금 특특] 성교육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 ✕ [특집]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
- ✕ [틴틴이슈] 소년법 폐지해야 하나?
- ✕ [글로벌미팅] 인도 유학생 Swati Das를 만나다
- ✕ [학교&한컷] 진주교원~ 진양교원~
- ✕ [#네임태그] 학교이름이 내이름?
- ▶◀ [동아리탐방] 삼현여고 패션디자인 동아리 엘르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경상사대부설중·고등학교편
- ▶◀ [I'M FASHION PEOPLE] 오늘은 뭐 입지?
- ▶◀ [SNS 맛집 검증] 알쓸신잡3 진주편, 바로 그 집
- ▶◀ [JOB을 잡아라] 윈스헤어, 김영경 헤어디자이너를 만나다
- ▶◀ [씨네통통] 영화, 러브레터 (Love Letter, 1995)
- ▶◀ [필통 그 후] 2015년 5월호 그달의 인물, 하지혜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철학과를 찾아서
- ▶◀ [기교] 정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망하게 할까?
- ▶◀ [취재수첩] 본적도 없는 교사를 평가하라고?
일방적인 시험성적 공개 사라져야!
밖에서 보이는 화장실? 왜?
생리공결제도,堂堂하게 조퇴합시다
D고등학교 실제 화재, 실제 재난관리 0점
금식소에 학생들이 먹을 밥이 없더니요?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1월호 문제



W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내 꿈은 뮤지션! 진주중앙고 2학년 민현정

노래로 감정을 표현하다. 제 노래로 모두를 위로 해 주고 싶어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진주중앙고에 재학 중인 2학년 2반 민현정입니다.

Q. 뮤지션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

A. 제가 감정표현을 잘 못해서 '노래로 내 맘을 표현을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뮤지션이라는 꿈을 갖게 된 거 같아요.

Q. 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저는 목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데 성대결절 이후에 목이 좀 아프면 연습을 쉬어요. 쉬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먹거나 소리를 덜 질러요.

Q. 하루 평균 노래 연습량은 얼마나 되나요?

A. 노래 듣고 카피하면 하루 보통 4~5시간 정도 연습 하는 거 같아요. 시간만 허락되면 더 하고 싶죠. 늘.

Q. 존경하는 가수가 있나요?

A. 저는 임창정씨, 에일리 같은 파워풀한 가수를 좋아해요. 예전 임창정 씨가 공연을 하는 도중 음향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음역대의 노래들을 당연한 듯 무반주로 부르는 장면을 보고 '진짜 존경해야 할 분이구나' 싶었어요. 관객에 대한 태도나 스스로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실력에 존경심이 생겼더라고요.

Q. 선호하는 노래 장르가 있나요?

A. 딱히 장르를 가리거나 고집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계속 배워야 하나까요. 그래도 발라드, R&B, 댄스를 주로 즐겨듣고 부르는 편입니다.

Q. 특별하게 가고 싶은 기획사가 있나요?

A.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기획사야 잘 알려진 3대 기획사를 누구나 원하죠. 로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고 싶기도 해요.

Q. 지금까지 많은 오디션에 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은?

A. 저는 SM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Q. 꼭 서 보고 싶은 무대가 있나요?

A. 저는 무대 욕심이 많아서 딱히 서 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 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무대든지 다 서 보고 싶어요.

Q. 무대에 섰을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A. 저는 오히려 관객이 적은 곳에서는 더 많이 떠는 것 같아요. 관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심장이 뛰합니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Q. 슬럼프에 빠졌던 적은 없나요?

A. 있었죠. 제가 지금은 학원을 서울에서 다니는데 그 전 진주에서 학원을 다닐 때, 언니와 오빠들이 입시 준비하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나도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자주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요즘 추세에 점점 시간은 가고 있는데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스스로를 힘들게 했었어요.

Q.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나요?

A. 주위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었을 때 '어, 좀 많이 늘었네', '잘하네' 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자꾸 생겼어요. '나는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깐 극복하게 된 거 같아요.

Q. 뮤지션이 되고 나서 그 후 계획이 있나요?

A. 지금은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데뷔를 하는 것이 계획이죠. 그 어떤 데뷔가 되든 뮤지션으로 살면서 노래하고 공연 무대에 서고 곡도 만들며 살고 싶어요. 여유가 있으면 봉사도 다니고 싶고 부모님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나중에는 꽃집이랑 카페를 차려서 운영도 해보고 싶어요. 물론 늘 음악과 함께 하면 좋겠죠.

Q. 뮤지션이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A.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무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니까요.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 무엇이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3학년 축제때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양화대교를 부르던 모습〉



〈지난 해 진주에서 공연을 하여 도깨비 OST인 stay with me를 불렀던 공연 장면〉



〈진주에서 학원을 다닐때 SNS에 올린 영상 캡처 화면, 조회수 2천명을 넘겼습니다〉



〈2018 청소년 수련회관 상반기 발표회 때 동아리 대표로 무대에 올라 '홍연'을 노래하던 장면〉



〈2018년10월 개천예술제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에서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곡을 불러 입상〉

2018년 진주시

2. 댄스 경연대

10. 3.(수)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취재/ 진수민(중앙고2), 김단희(동명고1)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흉악범죄... 소년법 폐지해야 목소리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에 누리꾼들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낸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경찰은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할 당시 입었던 A군의 패딩 점퍼

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패딩점퍼는 러시아 국적인 A군의 어머니가 온라인 게시판에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내 아들 것"이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해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내고 있는 상황.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신분인 데



약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현재 중학생 신분인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

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에게 거센 성도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여론과 달리 조두순 사진 유포는 불법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6)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 살인범' 김성수 등과 다르게 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조두순의 출소일이(2020년 12월 13일) 다가오면서 '헌법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왔음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조두순이 언급된 청원은 6300건을 넘어섰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신문·잡



지 등 출판물, 방송 등에서는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 따라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능 끝 알바 시작! 수험생을 위한 알바 상식은?

수능시험 종료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알바몬이 올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험생 중 98.8%가 '입시 전형이 끝난 후 알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알바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먼저 알바 구직 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확인은 필수다.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 수험생들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1월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된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1년 미만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

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일 및 초과근로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지급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수험생이라면 근무 시간, 근무 장소 확인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주와 청소년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연장 가능한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수 없다. 단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야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로 시에는 정해진 시급보다 50% 많은 야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고용주는 성인·청소년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만일 알바를 하면서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동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5세 이상이라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알바 관련 문제 상담은 물론, 전국 노무사로 구성된 알바지킴이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가부, 자살송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은 매년 2천명이 넘는다.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2011년 9.4명에서 2015년 7.6명으로 점차 줄었으나 2016년 7.8명으로 다시 늘었다. 자살은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꼽힌다. 여가부가 청소년 자살, 자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자살송'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11월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을 구성, 지원한다고 밝혔다.

北 휴대전화 600만대 중고생도 BTS 동영상을 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 대라고 최근 강연한 걸 들었는데 맞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북한 인구가 2500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4명에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은 또 "중고교생도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데 (북한에서)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인터넷 개방은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방탄소년단 콘텐츠가)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현재 (통신망이)

3G 아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판매 가격은) 100달러부터 200달러 사이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아동 대상 범죄 등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제한

앞으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경남 학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내년부터 경남도내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확대·실시된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10월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5개 안건과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 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서 민선 7기에는 처음으로 열렸다. 그 동안 교육행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이 상충돼 왔던 만큼, 4차례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먼저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김경



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학교무상급식'은 당장 2019년부터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2018년 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된다.

문산중학교 청소년 기술경진대회 대상

진주 문산중학교는 1학년 박지연·정승현(지도교사 김미아)팀이 지난 11월 9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열린 '2018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40개 팀이 신산업 분야에 적용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제작하고 특허출원까지 진행하는 경진대회이다. 이번에 입상한 문산중학교 1학년 박지연, 정승현 학생



은 '내담대로 고데기'에 대한 주제로 경남과기대와 연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지도교사와 함께 대학을 오가며 연구를 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고교생 귀가 돕는 남해 100원 행복택시 호평

'100원 행복택시'는 군내 고교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면서 겪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1인당 100원만 내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총 4개교 100여명의 학생들이 21대의 택시와 1대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차액은 남해군에서 지원하며, 도보로 통학하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되된다.

조규일 진주시장 청소년 꿈 특강



"꿈이 있는 한 열정은 떠나지 않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1월23일 진주동명고등학교와 지리산고등학교를 방문해 '꿈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규일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와 역사 속에서 꽃피운 호국·호의·평등정신 등 진주정신을 강조하며, 진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진주의 역사와 현재를 다양한 사진과 생생한 경험담으로 풀어냈으며,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꿈이 가진 힘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특히 조 시장은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솔직하게 전달하며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과 목표

를 마음 속 한쪽에 잘 지킨다면 언젠가 열정이 함께 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정과 꿈이 가진 힘을 강조했다.

진주남중, 학생들의 꿈과 재능으로 학예 전시

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밴, 그간의 학습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진주남중학교에서 열린다. 진주남중학교는 지난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학교 중앙현관 2~4층 복도에서 학예제 전시장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시장에는 진주남중 1~3학년 전교생들이 올해 수업시간 등에 했던 교육활동의 결과물이 전시된다. 이러한 전시는 진주남중 학예제의 일환으로 매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학생들의 미술·과학·국어·교과 등에 대한 학습 결과물을 비롯해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수상작 및 공모 작품, 경남 독서한마당 공모전 작품 등이 선보여진다.

한편 진주남중학교의 학예제 공연은 지난 22일 오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

개양중 김결수 교사와 1명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

경남도교육청은 11월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2018년 대한민국 발명교육 콘퍼런스에서 진주 개양중학교 김결수 교사와 창원 웅남초등학교 김인철 교사가 발명교육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은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전국에서 8명이 최종 선발됐다. 지난해 경상남도과학교육원 황승재 교육연구사의 수상에 이어 올해 두 명의 교사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경남교육청은 발명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김결수 교사는 지난 1997년부터 발명교육을 시작해 발명동아리, 발명교실 강사로 활동하는 등 20여 년간 미래의 발명 인재육성에 기여했고, 2015년에는 지



리적·문화적 소외지역이었던 한산중학교에 부임해 발명동아리반을 조직, 각종 발명창의력대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수상을 이끌어냈으며, 최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올해의 과학교사상에도 선정됐다.

진명여중 따뜻한 학교, 훈훈한 사제지간

진명여자중학교는 13일(화) 07:50분부터 08:30분까지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전교생과 전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학교, 훈훈한 사제지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따뜻한 학교, 훈훈한 사제지간'은 등굣길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핫팩과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따뜻하고 훈훈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행사이다. 추운 겨울 등굣길이지만 학교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선후배들이 나누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건네는 핫팩으로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었다.

선명여고 제1회 외식조리과 졸업작품전

선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23일(금)에 제1회 외식조리과 졸업작품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체육관 1층 조리실습실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3학년 외식조리과 졸업예정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멋진 솜씨를 뽐냈다. 출품 부문별로 주제에 따라 작품이 만들어 졌는데 제과&공예는 "장미" 한식은 "사계절 밥상" 양식은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가 주어졌다.



진주 금곡중 '별천지' 으뜸

진주 금곡중학교 천체관측부 '별천지' 학생들이 11월10일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 청소년 천체관측대회'에서 경상남도지사상을 받았다. 금곡중학교는 전교생이 25명인 소규모 학교로, 별천지는 지난해에도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진주동중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 3위

진주동중학교가 지난 11월17~18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진주동중은 예선전에서 3연승을 거두며 2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8강에서 경북 영양중을 만난 진주동중은 3-0으로 가볍게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준결승(4강)에서 부산 해운대중에 1-3으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결승행이 좌절, 3위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기타 연주, 랩, 춤, 밴드 음악, 판소리, 피아노 연주, 마술쇼, 노래, 난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앞서 이날 오전 학교 중앙광장·과학실·도서실·운동장·컴퓨터실 등에서는 다양한 체험전이 열려 학예제의 활기를 돋웠다.

경남도 최고장인회, 경남자동차 고와 MOU 체결

경남도 최고장인회와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지난 11월3일 학교 교정에서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제반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교육기부협력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 최고장인회 기계, 전기, 조선, 공예, 도자기, 미용,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장인 20여 명의 회원들은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산업설비과, 전기전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함양을 비롯하여 진로지도와 교육기부 협력 행사에 많은 최고장인회 회원과 선생님들이 참여한 가운데참교육의 현장에서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경남정보고 청소년119안전뉴스경진대회 은상

경남정보고등학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한 제12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 경남대표로 출전해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달 경남도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 참가해 경남도에서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으며 전국대회에 경남대표로 출전했다. 경남정보고등학교 팀은 UCC에서 '한번 더 확인! 모세의 기적을 위해!'라는 주제로 노후 소화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소화기 사용 방법, 119 긴급출동에서 차량 진입을 힘들게 하는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와 긴급 출동을 하는 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및 양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뉴스형식으로 UCC를 제작, 전국대회



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무대공연을 재현했다. 경남정보고 인터넷방송동아리(드림필름 프로덕션)학생들이 주축이 돼 20여 일간 전국대회 무대공연을 위해 연습한 결과, 은상 수상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경상대 사대부고 박수연 또래상담자 공모전 대상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박수연(2년) 학생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2018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월22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또래상담자 교육 참여, 활동 경력, 스마트 수첩을 활용한 체계적 관리, 사례의 적합성, 또래상담의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심층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박수연 학생은 '너는 내 특별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작성했다.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배운 상담기법을 적용해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 말 걸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 이끌어 내기, 열린 질문 많이 하



기, 내담자의 관심주제로 대화 유도하기, 학교 밖에서 내담자가 관심이 많은 활동 같이 하기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진솔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간 사례를 제출했다.

KBS 도전골든벨 선명여고 최후 1인 골든벨 좌절

선명여자고등학교가 '골든벨'에 도전했지만, 47번 문제에서 '녹다운'을 맞추지 못해 녹다운 됐다. 지난 11월25일 오후 방송한 KBS1 '도전골든벨'에서는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골든벨을 위해 문제를 풀었다. 이날 최후의 1인이 된 선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예지 학생은 47번 문제에서 '녹다운'을 적지 못해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다. 한편 녹다운은 복싱 용어의 하나로, 상대의 타격으로 발 이외의 몸의 일부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기계 등을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날 특히 진주 선명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국가대표 배구선수



정호영이 출연하여 화제를 일으켰다. 정호영은 본선 17번 문제까지 성공한후 패자부활전을 통해 39번 문제에서 아쉽게 탈락하였다.

명석중, 전국 환경동아리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진주 명석중학교는 환경동아리 Green Keeper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국 환경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중·고등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명석중학교 Green Keeper는 올해 4월부터 매일 1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 곳곳에서 친환경 SAVE 캠페인활동과 환경보호 체험부스를 운영해 왔다. 명석면의 나불천살리기운동, 교내 환경주간 운영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친환경동아리활동을 이어 왔다. 이번 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예선에서 선정된 28개 팀이 참가해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명석중학교



Green Keeper는 '명석한 초록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재미있는 연극 형식으로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대아고 연세-대아동문 장학금 전달식



대아고등학교는 11월 19일(월) 오전 09시 30분에 교장실에서 하반기 '연세-대아동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전달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혜택받는 인원을 2배로 늘렸다고 한다. 연세-대아동문 장학금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전달한다. 학생들은 장학증서 전달식과 함께 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아동문 장학금'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대아고등학교 동문들이 뜻을 모아 후배들을 위해 기탁한 장학금이다.

진주여고 학생회 한국선비문화원 하루 체험

진주여자고등학교는 2018년 11월 3일 산청군 시천면에 위치한 한국선비문화원에서 학생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선비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선비문화원 원장의 특강, 불로초 식단으로 점심, 국궁체험, 산천에서 남명선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피고 기념관에서 남명선생의 신도비, 율묘사직소, 신명사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다.

제일여고 예체능 진로 희망 학생 선학진로체험활동

진주제일여고는 지난 11월25일(일) 1,2,3학년 학생 중 예체능(미술) 진로를 희망하는 미술진로 희망자 32명과 함께 일산 킨텍스로 선학진로체험활동을 다녀왔다. 이날 학생들은 2018.11.22.(목) ~11.25.(일) 일산 킨텍스에서 MBC, 아시아 아트넷 위원회가 주최한 아시아 10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복합문화 아트페스티벌 'Art Asia 2018'에 참여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견문을 넓혔다고 한다.

진주고 역사동아리 경북 영주·안동 서원 답사



진주고등학교 역사동아리 'HOPE'는 지난 11월3일 경북 영주와 안동에 있는 서원 답사를 다녀왔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배웠다. 동아리 회장인 홍민우 학생(2학년)은 "서원을 걸으면서 조선 시대의 선비정신에 대해 들었다.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남과학고 앱 개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남과학고등학교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전국 최대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인 '2018 스마트 앱 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에 도전해 9월에 결선 21팀에 선발, 10월에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남과학고는 '2018 스마트 앱 챌린지'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11월5일 판교 SK 플랫 본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고등학교 총 349팀, 1291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상(대상 후보작)을 수상함으로써 명문 과학고로서의 명성을 이었다고 밝혔다. 경남과학고 Projection팀(2학년 강현중, 이승준, 류민서, 배민석, 1학년 백선인)은 수학의 정사영 원리를 이용해 3차원으로 이루어진 맵을 방향에 따라 전환하며 오브젝트를 습득하는 퍼즐 게임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 프로젝트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경남과학고 화학탐구페스티벌 3년 연속 금상 수상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0월 31일 제15회 화학탐구프런티어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제15회 화학탐구프런티어페스티벌은 2004년부터 이공계 활성화 및 미래 화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고교 최고의 화학탐구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전국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2차 심사 평가를 통해 본선 72팀이 선정됐으며 오리엔테이션(6/2, KAIST), 산업탐방(7/25,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본선발표(8/18, KAIST) 등 약 4개월간의 탐구와 실험활동이 진행됐다. 경남과학고는 2학년 류세하, 문정일(흑백논리팀)이 '계면활성제의 미셀 구조 형성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효율성 증가에 관한 연구(지도교사 정민정)'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금상수상팀에게는 7박 9일 동안의 미국 동-서부 대학탐방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상대 부설고 노학기 교사 과학교사상 수상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는 노학기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하는 '2018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1월22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시행 중인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학생의 학력과 창의력 신장에 이바지한 과학교육부문과 과학탐구활동 및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문화부문 등 2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학기 교사는 과학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내년 1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소속 학교에는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시상식은 12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특집]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

인권 때문에 망할 학교라면 진작에 망해야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교육이 사회에 이로울리 없다

중학생인 큰 딸은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머리를 노랗게 염색 했다. 미용실에 가서 염색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친구 몇몇이 어울려 인터넷으로 염색약을 구입해 한달 우리집에 모여 서로의 머리를 각자 원하는 색으로 물들였다.

나와 아내는 셋노릇하게 변한 딸의 머리가 어색하고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머리색 만큼이나 환하게 웃으며 '어때 어울려?' 라고 묻는 딸에게 차마 싫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똥진데, 의외로 잘 어울리네 흐흐'.

입은 웃 취향이나 머리색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면 당장에 '꼰대'라는 말이 돌아올까 두려워 속에 있는 말로 상찬한 것만은 아니다. 웃이나 머리색 정도는 자기 취향대로 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했고,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의 취향을 부정하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에 피어싱을 해보고 싶다는 딸의 말에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애썼지만, 출혈과 감염 위험이라는 변변치 못한 이유를 들어 극구 막아야 했다.

'인권 문제'는 쉽게 말해 '우리도 사람 취급 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모든 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피어싱을 해보고 싶다는 딸의 말에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막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나는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모일까? 그렇지도 모른다.

아이가 머리를 물들이고 자기 취향대로 옷을 고른다면 그 나이는 언제쯤이야 할까. 취향과 욕망이 생기는데로 허용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면 술이나 담배는 언제부터 허용해야 할까? 섹스나 동성애 취향은 언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들도 모두 취향

과 욕망이 생기는 대로 허용하는 것이 인권일까? 아니면 술과 담배 약물 섹스를 성년이 되기 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일까? 적어도 대한민국 법률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과 욕망을 '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기는 한걸까?

인권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연다면 적어도 이러한 논점과 주제를 잡아 치열하게 논쟁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차마 눈뜨고 못보아줄 만큼 참담하고 천박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 20일 창원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장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고성과 폭력을 행사해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을 문란하게 하고, 교권을 침해해 학교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인권조례가 없는 학교는 지금껏 얼마나 정상적이었나? 학생들을 치열한 입시경쟁에 몰아넣고는, 잠을 재우지 않고, 머리모양 옷 색깔, 양말 색깔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군대식 또는 감옥식 교육으로 그동안 학생들은 또 어른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 했나?

어떤 이는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을 뺏거나 금지하지 못하게 되면 휴대폰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질 것이라 걱정한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금하고, 자기 주장을 허용하고, 학칙에 대해 토론하게 하면, 다시말해 학교 생활에 대해 학생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가 망할 것이라고 한다.

감히 말하건대,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한다고 망할 학교라면 진작에 망해야 한다. 사람을 사람 취급 하지 않는 교육이 길러낸 인재가 사람과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에 대해 제대로 말하려면 우리는 학교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육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말해야 한다.

근대 학교 교육은 값싼 노동력을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도구로서 기능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투자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간을 계량하고 평가해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은 인간이 자기 신체와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과 지역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제정된다고 당장에 학교가 바뀌고 학생들의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보편적인 인권수준조차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지길 희망하는 것은 영영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애써 물들인 머리를 방학이 끝나기 전에 다시 검정색으로 물들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

[기고/ 서성룡(단디뉴스 편집장)
whon7@hanmail.net]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반대측 소란에 파행 '아수라장'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로 열린 공청회가 반대측의 항의와 소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1월 20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남교육연수원 안팎에서는 찬성과 반대측이 몰려 집회가 벌어졌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교육연수원 앞 개울의 건너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교육연수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벌였다.

그런데 공청회를 시작할 무렵, 학생인권조례안 반대단체 인사 10여명이 고성을 지르며 진행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행자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단상 위에 올라 책상과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고, 자료집을 던지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은 "공청회 무효" 등을 외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측과 공청회 주최측 사이에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호를 외치던 반대단체 한 명은 쓰러져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정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망하게 할까?

경남 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등장하였다. 정말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를 망하게 할까?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문제 삼아지는 부분은 제16조(차별의 금지) 중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반대 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교를 문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미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제16조는 학교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문란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걱정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당연한 듯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듯이 교권 또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학생에게 체벌하고 소지품 압수를 하는 등의 행동이 교권이라는 말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실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조 1항)라고 되어 있다. 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없었던 권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인정하자는 것"

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의 학생인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18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 활동과 사설 모의고사 등 기타 평가를 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의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일

비재하게 침해당해온 인권을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이미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이 대부분이다.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안이라는 이유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원래 학생에게 없었던 권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미 있었지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자는 것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첫걸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일상이 된 학생 인권침해가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마땅히 잘못되었고, 함께 고민 할 일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더욱 행복하고 생활하기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그 시작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시민연대의 '청소년 행동분과'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제적인 캠페인과 조례 제정운동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청소년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하고 존엄한 '국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길 바란다.

bit.ly/조례만드는청소년
[기고 : 무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활동가]

[외부 필진의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틴틴이슈] 소년법 폐지해야 하나?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소년법 적용? 개정·폐지 논란 활활

잔혹한 10대 범죄 증가,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 다시 확산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를 저지른 10대 4명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자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성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 요구한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모르겠다. 인천 상해치사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 바란다",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을 청원한다" 등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 이외에 재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공백'을 교육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처벌로 매우려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 법조계 '글썸'

소년법을 실제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UN(유엔)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중형형을 선고해선 안 되고,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중형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껏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소년법 폐지는 법 질서상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소년법 개정 관련한 논의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강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법은 계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간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39만 8917명으로, 일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법이 검거됐다. 특히 전체적으로 소년법은 5년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의 소년법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2만1996명이 검거돼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호통판사 천종호판사

천종호 판사는 지금은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과거에는 소년법원에 있으면서 천10호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잘못된 청소년들을 엄히 심판을 하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호통 판사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 즉 개정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보호나 지도하기보다는 처벌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이전에 낙인이 먼저 찍히게 됩니다. 또 하나 소년법을 폐지하여 형법에 그들을 귀속시키고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게 되면 그들에게 책임 그리고 의무만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자유도 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파급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거나 죄를 지은 것으로 대중에게 판명이 되면 그를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고 그 처벌이라는 것은 적어도 유명인이라고 하면 방송 생명이 끊어지는 것까지 즉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가 이르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노가 많고 그러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무작정 그렇게 퍼붓는 것은 절대로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필통 기자단 3분 스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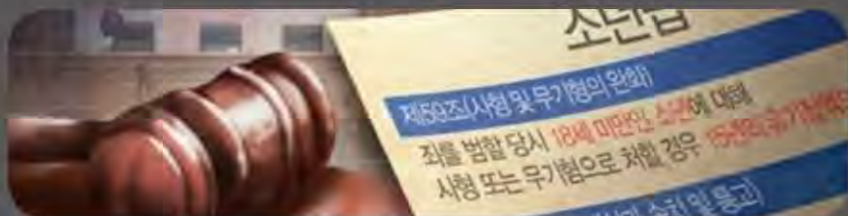
김단희기자(동명고1)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특혜)를 준 법률이다. 이 지위는 현재의 법이 청소년을 불완전하고 아직 성인의 사고와 달리 미숙하여 주어진 지위인데 이는 다른 법 조항에서도 드러난다. 섣달유제, 여러매체에서의 연령제한 등 이외에도 투표권등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이렇듯이 현재 법은 청소년의 정신을 미숙하게 보고 성인에게 열린 권리를 제한하는데 소년법만 그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형사적인 처벌은 어른과 똑같이 하고 권리는 나이 때문에 제약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 만일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어른들의 권리도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곽병기기자(진주고1) 일반적인 어린이와 정상적인 어른, 이 둘이 문방구 사탕을 훔칠 때 사고 과정은 분명 다를 것이다. 이는 교육과 의식의 문제인데 바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차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특정하기 힘들어 나이로 묶어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년법은 있어야 한다. 소년들이 경험적으로나 매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나 의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재범일 경우는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윤리적인 사고만으로도 잘못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역시 크기 때문이다.

김수현기자(사대부고1) 소년법은 폐지를 하면 안 된다. 확실히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청소년들에게 반성의 기회나 시간을 주지 않고 그저 징역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 특정 범죄, 예를 들어 살인이나 집단 폭력 등은 소년법에 규정 받지 않고 죄질이나 심각성을 사법부가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민규기자(동명고2)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좋겠다.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 예방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재범률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10년이 먼 강신도 변한단다는 말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본다. 어릴 때 개미를 밟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듯이... 이를 교육함으로써 억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에 이득이 큰 쪽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육선민기자(중양고1) 소년법은 필요하다. 사회엔 최소한의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보호 나이를 낮추고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다양한 경험에 대한 연령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현재의 보호 나이는 무의미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서영기자(경해여고1) 앞으로 나이갈 방향이 많은 청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교화보다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른과 비슷한 심지어는 어른보다 훨씬 잔인한 범죄행위를 하여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켜 소년법의 목적인 교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년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임수종기자(진주고2)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뤄지는 기본적 교육이다. 남을 때려선 안 된다. 물건을 훔쳐선 안된다와 같은 교육은 이미 이뤄진다는 말이다. 단지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상황을 겪은 시간이 다를 뿐, 받은 교육의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보호막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수진기자(사대부고2)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시대가 어느 정도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도 많은 정보를 안다. 그 정보라는 것이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못된 것'일지라도 청소년은 그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운다. 인천 중학생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도, 즉 청소년들도 상당히 영리적이고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번 사건을 교화와 선도를 핑계로 송방방이 처벌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다. 믿고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색은 질러야 마땅하다.

김정빈기자(진주고2) 난 소년법 폐지를 찬성한다.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은 보통의 성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성인과 청소년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을까 싶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러 수도 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소년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형법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보다 훨씬 무서운 처벌이 기다린다는 걸 알게 했으면 한다.

김민수기자(영신고1)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년법을 강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만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년법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법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있다. 이번 인천 중학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초등생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모두는 학생, 즉 소년법들이다. 단지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며 성인법보다 교화가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제 칫값을 치르지 않는건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소년법과 성인법 둘 다 범죄자인건 마찬가지이고 재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성인법과 소년법 사이에 차별을 두면 안될 것이다. 소년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하던가 폐지를 하고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필통편집국]

[19금 톡톡] 성교육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애벌이든 오벌이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성교육이다

언제까지 성교육을 아동에 맡길 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임신 문제, 성병 문제 등 여러 성 관련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은 성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시대적 배경,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필통기자들과 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 솔직하고 조금은 대담한 톡톡을 진행해 봤다.



#1. 중학교에서 성교육?

♂J(고2): 강당에 모여서 초청강사의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보건선생님께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H(고2): 나도 강당에 모여서 교육받은 적이 있어. 보건선생님과 수업한 적은 없지만, 기술가정 선생님께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받아 본 적은 있어.
♂S(고2): 나도 기술가정 선생님과 수업을 받았어. 또, 강당에 모여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도 있어. 과학시간에 선생님께 정자 이동경로와 사정 후 임신이 되기까지의 과정, 여성의 임신가능 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
♂W(17): 보건시간에 콘돔을 남자 성기 모형에 직접 끼워보는 실습을 한 적이 있어.

“학생들은 중학교때 성교육은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2. 아동은 언제?

♂J(고2): 남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접했을 거야. 모르는 학생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한 반에 2~3명 정도 있을지나?
♀H(고2): 여학생들도 대부분 접했을 거야. 시기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저학년정도?

“우리나라 건강한 청소년들은 초·중·고에 대부분 아동을 접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SEX에 S자만 나와도 난리다.”

#3. 고등학교 성교육은 달라?

♂M(고2): 보건 수업 시간에 반에서 몇 명씩 나와서 콘돔을 끼워보는 실습을 받았어.
♀H(고2): 2학년 1학기에 보건수업을 했어. 보건선생님에게 배웠지 않았고, 성교육만 배웠지 않았어. 또, 영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받았고...
♂J(고2): 우리는 거의 받은 적이 없었어.
♂S(고2):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로 받았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 로 정리 된다. 독학해라로 해석?”

#4. 성교육이 어떻게 해야 돼?

♂J(고2): 반마다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해줬으면 해. 구체적,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성행위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H(고2): 고등학생은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5. 성교육의 수위는?

♂J(고2):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애널 섹스같이 기준에 배우지 않던 성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알려줘야 할 거 같아.
♂M(고2): 학교에서는 남녀 간의 성관계 정도까지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동성애까지 조심스럽고.
♀H(고2):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려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난 지금도 애널이나 오럴 같은 걸 모르니... 이건 아니잖아.

#6. 성교육이 도움이 될까?

♂J(고2): 성관계같이 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도움을 줄 거 같아. 피임 같은 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H(고2):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나도 도움이 될 거 같아.
♂S(고2): 교육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성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이성을 대할 때의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정규 과목도 필요하다고...”

#7. 마지막 한마디?

♂M(고2): 배울 건 배워야한다고 생각해. 성! 이건 필수잖아!
♂J(고2): 성교육을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하지말자.
♀H(고2): 정부야!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것도 해봐!
♂S(고2): 성폭력 예방교육만 하기보단,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해.
♂W(17): 구시대적이고, 부실한 성교육은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성교육 좀 합시다.

“제발 성폭력예방교육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지 성을 두고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하고 성을 부정적인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정말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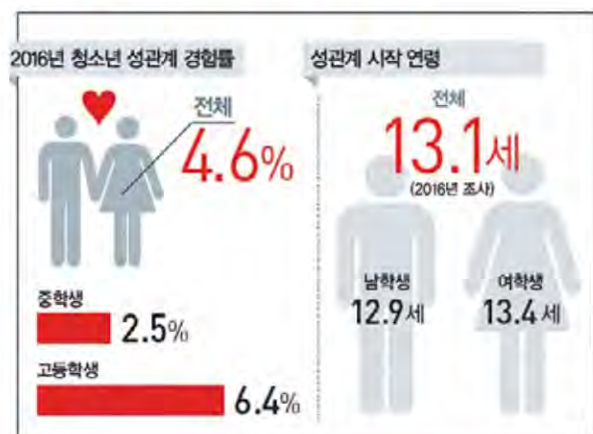
초·중·고의 아동이 우리나라 성교육 바이블이 되어서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아동을 찾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건강한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호기심을 아동으로만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녀의 사랑을 눈요깃거리 가짜인 아동을 통해 상상하게 하고 배우게 해야 되겠는가?

육체적인 성행위도 분명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며 우리 청소년들도 제대로 알고 잘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이지 않을까? 19금으로 억박 지르고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의 눈만 가리려 하며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성교육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여전히 아동을 보며 사랑을 배우고 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성교육 후진국



청소년기까지만 어떻게든 섹스를 못하게 하고 성인인 된 후에는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게 한국의 성교육

핀란드는 청소년에게 무료 피임 교육을 진행하고 무료로 피임기구를 배포해 10대의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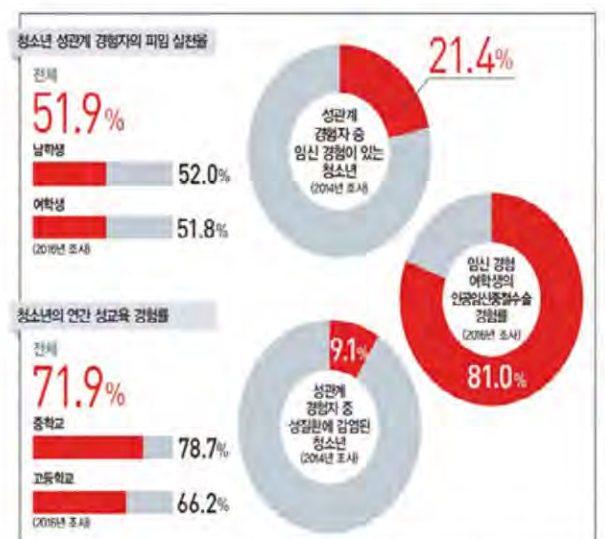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조기 피임 교육과 피임기구 구매환경을 조성해 첫 성관계 시 93%가 올바른 피임을 하고 있으며 임신·낙태율이 세계 최저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개방적인 성문화에 비해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콘돔 접근성이 쉬워 10대 임신율과 낙태율은 세계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다. 만 4세부터 성교육, 15세부터는 피임을 교육한다. 핀란드는 1970년부터 성교육을 필수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하는 등 이른 나이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행한다.

캐나다는 역할극을 통해 위험 상황 대처법을 익히고 위생적인 자위 방법을 가르치는 등 적극적인 성교육을 시행한 결과 10대의 임신율을 낮췄다고 알려졌다. 실용적으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진행하려면 학교에서 일회성 집단 특강이 아닌 정규 수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성 교제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성교육에서 이성 교제 시 청소년들이 심각한 성행동을 금기시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성을 주제로 한 교육내용이 상당 부분 다뤄지도록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 정세준(진주기공2), 원지현기자]

[우리 학교에만 있다] 경상사대부설중,고등학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 교문 위 가슴을 울리는 글귀들...

시 한 구절이 한 사람의 하루를, 한 달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하나의 글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활기차고 청량한 등굣길. 경상대학교 사대부설중-고등학교의 교문에서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특별한 현수막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다양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교문 위 하늘을 올려다보며 현수막에 적힌 글귀를 되새김해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있었던 현수막 내용들...

[2017년 여름]

여름이 오면 친구야 그늘을 드리우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

- 이해인 '여름편지' 중

[2018년 봄]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 김종해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중

[2018년 여름]

시를 쓰려거든 여름 바다처럼 하거라 바다는 넓고 크지만 작은 진주를 키운다

- 이어령, '시를 쓰려거든 여름 바다처럼' 중

[2018년 가을]

입이 없어 앞으로 말하는 가을나무 어느새 대문 앞에 수북해진 이야기

- 정현욱 창작

[잠깐 INTERVIEW]

현수막 담당, 경상사대부설중

류미정 선생님

Q. 교문 위에 현수막으로 글귀를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이 교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하거나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좋은 글귀들을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사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시적 언어를 접함으로써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이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하셨나요? A.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던 사대부중만의 일종의 전통 같은 거랍니다.

Q. 현수막 내용이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정해져 있다가 보다 요즘엔 1년에 4번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Q. 현수막 내용이 다양하던데 주로 어떤 기준으로 글귀를 선택하시나요? A. 그 때의 계절에 맞으면서 친구간의 우정, 학생으로서의 자세,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귀를 엄선해 선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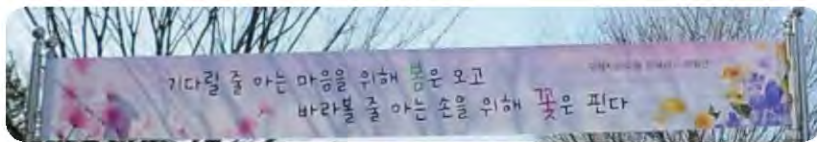
Q. 그렇다면 혹시 담당 선생님이 국어..? A. 아닙니다. 홍보, 게시를 맡는 선생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맴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 신경림 정월의 노래 중에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위해 봄은 오고 바라볼 줄 아는 손을 위해 꽃은 핀다”
- 정일근 무제치효의 봄 중 에서

[취재/ 이수진(사대부고2)기자]



[학교&한컷] 진주고엔~ 진양고엔~

[진주고& 한컷]

진고의 특별한 응원문화 축구명문 진고, 승리하리라!



진주고학생들은 특별한 경험을 한다. 전교생 응원! 지난 10월 22일 진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진주 모덕 축구경기장에서 진주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고와의(K리그 주니어 B조) 경기를 응원했다. 약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북과 드럼은 물론 다양한 응원도구를 사용하고 미리 응원구호를 연습하는 등의 결과로 멋진 모습이 연출됐다. 마치 유명한 대학 라이벌 연고전 응원을 보는 듯 했다.

교복을 입은 모든 학생들이 응원봉을 들고 목이 터져라 흥겹게 모교 축구팀을 응원하는 진풍경은 진주고 아니면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전통의 명문 축구부를 가진 진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즐거운 시간이다.

경기는 응원에 힘입어 진주고가 2골을 먼저 넣으며 기세 좋게 시작하였으나, 막판 아쉬운 실점으로 2-2로 비겼다. 한편 진주고등학교 축구부는 K리그 주니어 B조에서 우승했다.

진양고&한컷

이런 체험은 처음이야! 진양고, 학생과 교사의 자리 바꾸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진양고에선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11월3일은 '학생의 날'이다. 원래 학생의 날은 학생독립운동일을 기념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정부주관의 기념일이다. 마냥 학생을 위한 날이라고 하기엔 씁쓸한 뒷맛이 있지만 지금의 '학생의 날'은 진정 학생을 위한 날로 새롭게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11월 2일 진양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학생

과 교사의 입장바꾸기 라는 흥미로운 체험이 진행된 것이다. 학생 중 한명이 선생님이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학생처럼 수업을 듣는 것이다. 일단 모두에게 신선함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처음이라 어색함도 컸지만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잠시라도 헤아려 보는 시간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였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지는 의문이지만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 광병규(진주고1), 육선민(진양고1)기자]

[맏칸년맏반] 대아고등학교 2학년 5반편

단합력zero! 추진력zero! 대아고 문과반의 외모를 담당한다?

단합력zero! 추진력zero! 우리 반의 자량이 뭐냐 물어본다면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 대아 2학년 문과반의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똥기, 장난이 순삭 된 대아고등학교 2학년 5반. 각자의 개성이 강해 잘 섞이지 않지만 5반만의 특색이 있다.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이뤄져 각각 자기주장이 아주 강한 반, 점심시간 항상 다른 반과 축구약속이 잡혀 있지만 다 같이 나가지는 않는 특이한 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 반이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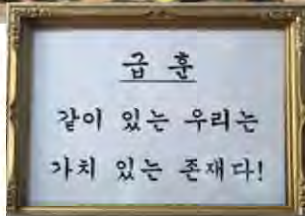


공모 급훈, 같이? 가치!

학년 초에 김병훈쌤배 급훈 공모전이 있었다. 문상 5천원이 걸려있어 몇 명이 응모를 했었다. 재밌는 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상욱 학생의 급훈이 선정됐다. 급훈에 걸맞게 같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치는 교실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우리반 담임, 김병훈 선생님
멋진사람 대아고 참된 국어담당 선생님. 남자 쌤들 중 네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빛나는 외모를 자랑하신다. 다방면에서 다재다능, 신기할 정도로 무슨일이든 속전속결 해결하신다. 너무 칭찬만 적혀있다고? 절레절레~ 가끔 조례를 하시다가 통신문을 가져 오지 않는 등 엉뚱미를 발산하신다. 그 또한 뽕훈쌤의 매력! 사진이 필요해 조례시간에 급하게 찍었지만 빼어난 잘생김은 감출수가 없었는지 화보가 따로 없다.^^



나의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빈	황	설우
강상욱	@	농안농안
권순원	♡	♡
김민준	이름 예쁜 친구	insta:m_minjun
김지민	키166에 머리 묶으면 이쁜 분	류원석 바보
김지호	연락 빠른 사람 ♡	노래 부르고 싶다...
김찬우	키160에 귀여운 여자	010-4301-3518
류원석	친생연분	김지민 ♡
손예성	지켜주고 싶은 여자	잠 자고 싶다.
심규민	헬스 하는데 뱃살 잡히는 여자	노래 부르러 가자
양영진	핀 찌른 게 작살나게 이쁜 분	모지리 진품
오세웅	키 작고 귀여운 분	김병훈쌤 5만원 주세요~
오승현	멋진 여자	김병훈 선생님 5만원 주십시오!
우태훈	분위기 조지는 여자(전지현)	맨체스터의 주인은 UTD!!
유승민	키 작고 귀여운(아부키 나코)	놀이줄 친구 구함
이서이	나 같은 여자	다이까자
이승우	잔망스러운 분	seungwoo1ee
이종엽	스무스한 여자	우태훈 포레포~!
이주현	키 작고 착한 사람	여행 가고 싶다
이준행	매력 터지는 여자	놀러 가자
이호신	귀여운 여자	주말에 시간되는 분 폐매 주세요
임승호	겉크러쉬	다 드루와
임영재	돈 많은 사람	양띠 ♡
정재원	잘 웃고 노래 잘하는 여자 분	♡
조연근	연락 잘되는 귀여운 여자	천창록 분영! 연락주세요
조현준	키 크고 목소리 쏘아버리는 친구	영화 보러가실 분 연락~
천창록	좋아하게 되는 사람	나타나긴 할까..
최승훈	활발하고 애교있는 여자	김병훈쌤 5만원 주세요^^
조성호	조제알통	JPS 부활하자

멋짐폭발! 5반의 매력



이승우: 학교 옆에 집이 있지만 지각이 다반사인 친구이다. 수업시간에 정말 드루게 재미없는 드립을 자주 치는데 한번 뽕티지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드립을 친다. 푸근한 외모에 걸맞게 많은 친구, 선생님들과 엄청난 친화력을 보여준다. 옆에서 잘생겼다고 적어 달란다. 생각보다 특이함으로 중무장. 정글의 법칙에 가져갈만한 엄청난 커다란 배낭 같은 가방을 매고 다닌다.



강빈: 찌뽕된 얼굴이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다. 안경을 쓰고 벗고의 갭 차이가 상당하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눈이 엄청 순한 양치검 보이지만 벗고 있을 땐 생각보다 사나운 눈매를 선사한다.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줄거나 딴소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미술시간에만 살아난다. 자유분방한 영혼을 소유한 재밌는 친구. 우리반 공식 슬퍼퍼 도둑으로 알려져 있다.



오세웅: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친구다. 자신은 유럽쪽이라 우기는 데 반 친구 대부분이 아랍쪽으로 인정하고 있다.^^ 통칭 세젤영으로 세상 최고의 영어실력을 보유 중이다. 미용실이 맘에 안드라고 늘 두덜거리면서 항상 그곳으로 간다. 운동을 좋아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갑자기 뽕을 받으면 체육시간 열정의 영동함을 보여준다. 특유의 오리궁둥이가 더욱 빛을 바란다.



이준행: 요즘 부쩍 예지력이 상승했다. 예지력을 자주 꾸는 것 같기도? 뽕뽕을 사탕하는데 추울땐 친구 담요나 옷을 뺏어 입는다. 운동을 짱 좋아해 점심시간마다 축구를 한다. 꼭 사위장에서 샤워를 하고 와서 수업시간에 늦곤 한다. 뽕뽕안경을 새로운 안경으로 바꾸며 외모에 꽃이 피었다는 소리를 들더니 자신감이 뽕뽕, 하늘을 찌른다. 자신만의 인생샷을 쌓아가는 중이다.



조현준: 큰 키에 넓은 어깨, 긴 다리에 잘생긴(?) 얼굴, 거기 명석한 머리, 어디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친구다. 잠도 많고 매점도 사랑받는 대형건스러운 매력을 자랑한다. 반 애들이 수업시간 도중 현준이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선생님께 자주하며 선동을 일으킨다. 학년 초엔 매우 부끄러워하는 듯 하더니 요즘은 씩스름은 어디가고 즐기는 듯 한 모습이다.



최승훈: 7살까지 서울에 살아서 그런가? 매력적인 서울말투가 상당히 거슬린다.^^ 반 1등의 공부실력을 자랑하는데 공부하는 꼴을 못 봤다. 웃을 때 눈이 반달모양이 되어 팬스레 따라 웃게 된다. 작은 키에 비례해 반 top3 안에 드는 귀요귀움을 자랑. 가끔 자신도 그 귀티뽕뽕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를 무릅쓰고 너무 귀엽다는 야옹에서 자주 섹크를 올린 다.



김민준: 반장임에도 지각대장이라 불린다. 지각할 때마다 법원에 서부터 뛰어 오니까 힘들다며 학력대곤 한다. 365일 파마를 하고 있어서 아직 생머리를 보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자주 손질한다.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체구에 으아무사하게 큐티뽕뽕한 친구라고 생각된다. 평소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의식해서인지 거울 앞에서 자주 섹크를 올린 사람을 찾는다.



김지호: 힘이 장사다. 5명이 붙어서 넘어뜨리려 해도 잘 넘어가지 않는 친구다. 아직 지호에게 허벅지 씨름을 이긴 사람은 없다. 회를 잘 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 꼭 응? 하고 대답해준다. 웹툰 보는 걸 즐겨하는데 수학은 탐 클래스라는 반전을 선사한다. 길을 가다 이쁜 누나를 발견하면 우왕이뽕뽕을 발사한다. 얼굴상이 꿈을 닮았다.



양영진: 추위를 정말 많이 탄다. 수족냉증이 있어 친구들 옷 안으로 손을 마구 집어넣는다. 사진을 찍을 때 포즈가 한결 같다. 어느덧 우리 반 공식포즈가 되어 버려 부끄해한다. 중학교를 산청에서 나와 순수한 시골청년 느낌. 설거지를 즐기며 집사를 애가라 부르는 자취남. 약속시간을 항상 넘기며 귀찮아 안 나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리반 최고 뽕끼라 불린다.



오승현: 학기 중반까지는 말쑥만 부리더니 요즘에 들어 역변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최근 11월 모고의사는 반 일등이라 자부할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유의 거들먹거림은 남아있는 듯하다. 생긴 외모와 다르게 말뽕이 엄청나서 토로 강자라고 자부하지만 최근 토론대회에서 다른 학교팀에게 탈락 탈려 정신을 못차리는 중이다.



이서이: 우리 반의 마스크다. 항상 친구가 한 마디를 던지면 와우~! 거리는데 그럴 때마다 다들 배꼽 잡고 웃곤 한다. 포켓몬스터 중 디그다를 매우 닮았다. 하나 둘 서이 너이 할 때 그 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자기도 자기 이름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 항상 뽕죽한 머리를 자랑하는데 좀 길었다 싶으면 머리를 민다. 학년초엔 고슴도치라는 별명이 있었다.



김지민: 완전 원어민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일본어 시간만 되면 인싸가 된다. 배그를 할 때 시작과 동시에 죽어서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욕을 먹기 일쑤다. 방승부로 활동하고 있어 아침 명상의 시간 때 지민이 목소리를 듣고 명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결같이 공통된 반응, 진짜 집중이 안 된다.^^



김찬우: 부지런해서일까? 집이 명석에 있는데도 항상 제일 먼저 등교한다. 맨날 승훈이한테 우리 승훈아~ 거리면서 처근덕 된다. 축구를 하면 누구보다 가장 열정적인데 웬지 모를 약간의 여성함이 묻어 있다. 학교 여자선생님 한분을 너무 좋아해 흡사 유명 아이돌 팬클럽 회장처럼 엄청난 덕질을 보여준다.



천창록: 우리 반 최고의 영동함을 보여 주는 친구다. 항상 이준행, 이승우와 셋이서 셋 중 가장 나쁜 외모를 뽕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럴 때마다 아기고양이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뽕아 달라고 매력 발산! 아침에 등교하면 꼭 책상에 엮드려 있는데 컨디션이 회복 되면 엄청난 입담을 늘어놓곤 다. 짝꿍인 영진이를 사랑하는 듯.^^ 자타공인 우리반 분위기 메이커이다.



조연근: 이름에 걸맞게 별명이 뿌리다. 한자로 다른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문시간에 풀이를 해봤지만 그냥 연꽃의 뿌리여서 언제나 조뿌리로 통한다. 컴퓨터 담당이라 우리가 몰래 게임을 하다 들킨다면 항상 뿌리가 대표로 나온다. 그럴때면 항상 얼굴에 죄지는 강아지의 표정이 묻어 나곤 한다. 애들이 갈구면 항상 그 표정을 한다.



우태훈: 키가 190이 넘는 데 다리 길이가 3/2 정도 되는 듯하다. 교복 바지가 불편한지 등교하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 워낙 진지하게 임하는데 그 어떤 것을 하든 명칭미가 발산된다. 참들기 전 축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오면 다음날 꼭 따라해 보지만 어김없이 빼겨되는 몸을 뽕뽕해 된다. 하지만 큰 키는 그를 최고의 골키퍼로 만들었다.

[취재/ 양영진(대아고2)기자]

[맏칸년맏반-신청] 경해여자고등학교 1학년 4반편

빠용 빠용 소방차도 진압 못하는 넘치는 열정! 성적부터 외모까지 팔방미인 1학년 4반!

여기서 잠깐!! 귀요미 1등 경해여고 1학년4반을 소개 할게요~!! 우리 반은 일심일 최다배출^^ 단 4반의 마지막 추억 만들기 지금부터 레츠 기리기 리김기리 ㅎㅎ
합은 물론 비주얼은 말도 필요 없고 분위기 최고인



우리반 담임선생님
경해 비주얼 영어 일타 남경 teacher♥
첫 여고 제자가 퍼펙트 4반이어서 행복하시죠?? ㅎㅎ
겉으로는 티를 안내시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반을 사랑하시는 4반밖에 모르는 팔볼출! ♥♥♥

나의 이상형 &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

이름	이상형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
강유진	나(168cm)랑 키 차이 많이 나고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랑 성격 찰떡인 남자	리틀 이솜
강지윤	키 많이 크고 싸가지 없게 생긴 젤리 사주는 이민호같은 남자	날씬한 지방이
강진아	노래 잘 부르고 나랑 잘 맞는 사람	친화력 갑
김가을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	도라에몽
김규정	눈 크고 장난꾸러기 재치 쟁이(박찬열)	초딩2
김미솔	착하면서 솔직하고 귀엽고 엉뚱한 매력에 있는 사람	도미솔 주크박스
김민영	이상한 거에 잘 웃는 남자	사장님
김서영	나보다 키 크고 매너 좋은 남자.	헤 크(채재기)
류정원	웃는 게 예쁘고 예의 바른 사람	주디(주토피아)
박혜진	얼굴은 강아지상에 어깨 넓고 손이 예쁜 사람(백현)	아재 개그 1인자
신진	귀엽고 말을 예쁘게 하는 스윗한 사람	백사리
안소현	같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	느아이그웅
윤지영	딱 봤을 때 뒤에서 후광이 딱 하고 나오는 사람 (부처, 하느님 아님)	잠만보
이남륜	내가 좋아하게 될 사람	큐티 풀돌이 스머프
이예림	사람	뽕이 집사
전다은	이강인만큼 축구 잘하고 안 나쁘고 웃긴 사람	초딩3
전하영	웃으면 하두입술	얼음 공...주
정민희	목소리 좋고 착한 남자!!	미니미니
정채민	욕 안 쓰는 웃는 게 매력적인 사람	리틀 로제(블핑)
정호경	예의 바르고 재밌는 strong boy	다은러버
조영주	착하고 재밌고 웃을 때 귀엽+섹시한 사람	윙크충
조유나	순수하고 성격 좋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공부충
표지연	잘 웃고 재밌는 다정한 남자(송민호)	초딩1
하은주	키 크고 유머 감각이 좋은 남자	느아이그웅
홍나윤	이민혁	거울공주

보석처럼 반짝이는 우리 반 친구들



강유진:우리 반 대표 모델이다. 키도 키지만 몸매가 이상경 급. 예쁘고 안 질리는 얼굴. 매! 모델 해래 또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매점vip. 그냥 아가리 다이어터. 관심 있음 연락행~ @yyyujin_chu



강지윤:우리 반 대표 장신에 어마 무시한 기력 지를 자랑하는 일사 모델이다. 남자 선생님도 힘들어하는 에어컨을 똑 똑 때는 제2의 맥가이버. 다이어트 한다고 (무슨;) 고구마를 들고 오는데 그냥 간식이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먹는다. 마음에 들면 연락바람.



강진아:목소리가 큰 걸로 일등인 친구다. 그만큼 입담이 좋아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귀요미. 요리를 매우 잘한다고 하지만(본인 피셜) 정작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 실력은 미궁 속... 뭐 만하면 조퇴한다고 하지만 수업을 끝까지 듣고 가는 우등생이다.



김규정:우리 반에 자랑스러운 완소 퍼펙트 반장! 개그 욕심이 강하고 반대표 문짚이다.^^ 그래도 반장의 일을 똑 부러지게 하고 배려심이 깊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친구. 급식소에서 밥을 먹을 때면 저 멀리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웃음 소리가 크다.^^



김미솔:매우 솔직하고 흥이 정말 많아서 노래 없인 못사는 우리 반 공식 라디오! 정말 마음이 여리고 매력이 넘친다.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요즘 엄청난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김서영:우리 반의 리코더 원탑! 반에서 안소현 다음으로 기침 소리가 특이하고, 이마가 넓어 빛을 받으면 반사가 될 지경이다. 그리고 초콜릿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런 가 가끔 농글 거린다.



류정원:노래와 비주얼 담당! 노래는 수준급이고 운동도 잘해서 우리 반 출렁기 왕이다. 첫인상은 무서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열렬하다. 웃을 때 너털웃음과 갈매기가 되는 눈이 매력적이다. 마음에 들면 연락바람.



박혜진:키 크고 팔다리 얇고 예쁘고 그냥 갑이다. 타칭 크리스탈. 눈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윙크한다.(담임선생님께도). 잠을 때 표정부터 심각해진다. 아재 개그 드림, 어이없게 그게 또 웃기다. 시크 해 보이는 첫인상과 다르다. 많이 다르다. 꺾어봐야 안다.



신진:반 대표 남뿔이 팬클럽 회장!! 남뿔이만 보면 저절로 엄마 미소를 짓고 착해진다. 예쁜 쌍꺼풀과 누구든 보면 반할 것 같은 매력적인 미소의 소유자이다. 그 미소만큼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크다.



안소현:우리 반 유행어를 탄생시킨 장본인.(느 아이그웅) 생긴 거와 정반대로 기침소리가 엄청 남. 아마 전국 1등. 거의 뭐 소리 지르는 급. 자던 친구는 물론 선생님들도 놀라지빠짐. 애 기침 소리 안 들어봤으면 말을 마라 but 성격 좋고 애교 많은 애다.^^



윤지영:귀엽고 솜브라(오버워치 캐릭터)를 잘 하고 수업시간에 잘 자지만 영어를 잘한다. 특히 귀여운 거를 많이 들고 다니고 반 뒤에서 노는 거를 좋아함. 항상 아침밥을 삼각김밥으로 때운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좋아한다.



이남륜:누구도 반박 불가인 우리 반 최강 귀요미 부반장! 남뿔이의 말투, 목소리, 행동에서 귀여움이 묻어난다. (하지만 자신은 부인한다) 또한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이다.



전다은:운동 공주! 자칭 카리스마 다운이지만 주변 친구들이 볼 때는 착하고 화도 안 내는 손..수한.. 친구. 고독한 전다은방이 만들어질 만큼 잘 생성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6시만 되면 꼭 화장실 행~(통 이아기만 나오면 까르르 웃는 소녀다.^^)



전하영:예쁘고 도도한 친구일 것만 같은 이미 지였는데 열렬하고 귀여운 친구였다! 과학을 엄청 엄청 잘하는데 카리스마도 있어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너무 멋지다. 나중에 흰 가운이 잘 어울릴 거 같다. (윙크도 잘한다!)



정민희:볼 만지고 꺼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 중 TOP3 안에 드는 친구. 웃을 때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가 높은 솔가지...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늘 하이툰임. 웃음소리를 우는 소리로 착각하게 만든다. 항상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 캄을 끼고 있다.



정채민:별명은 챔스. 욕을 싫어해서 챔스와 있으면 저절로 욕 줄이기 캄페인 돼버린다. 공부할 때의 기억력으로 한 번 본 책은 다 기억해서 맨서같이 춤을 춘다. 다 리걸이가 계단 5칸씩 걸을 정도로 길다.^^



정호경:반에서 '조용히 해'라는 말을 담당한다. 웃을 때 호탕하게 웃으며, 보노보노를 달은 귀여운 얼굴과 상반되게 공부를 잘한다. 참고로 주먹이 잘 안 쥐어 지는 것이 인상 깊다. 맨날 안소현의 사랑을 받지만 항상 밀어내고 전다은을 너무 사랑한다.



조영주:우리 반 대표 쫄꼬미이다. 처음에는 조용한 줄 알았지만 눈만 마주치면 윙크를 해대서 모두가 경악한다. 수학 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매일 수학할 때 보면 답지를 베끼고 있어 답지 소녀라고 불린다.



표지연:시크한 게 매력인 우리 반 대표 눈빛 강패!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우리 반 고인 해결사이기도 하다. 첫인상은 근엄. 진지, 노잼 이었지만 현재 딸기잼 같은 재미를 독특 보여주는 친구다.



하은주:안소현과 느아이그웅 창시자로 일상이 개그인 친구다. 자기 개그와 관심에 웃어주면 매우 부듯해하고 기분 좋아한다. 가만히 자고만 있어도 웃기다. 느아이그웅을 너무 좋아해서 느아이그웅 쓰는 남자만날 거라는 쓸데없는 로망이 있다.

[정리/ 강진아와 경해여고1학년4반 친구들]

[씨네통통] 필통 백투더 시사회

영화, 러브레터 (Love Letter, 1995)

필통기자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오래된 옛날 영화를 한 편 선정, 함께 모여 그들만의 시사회를 가진다. 감상도 쓰고 평론도 하고 평점도 매겨본다고 한다. 그 세번째 시사회의 영화는 '러브레터' 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멜로 영화 '러브레터' 2018년 청소년들은 20여년 전 '오갱끼데스까'의 가슴저린 외침에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들의 감상평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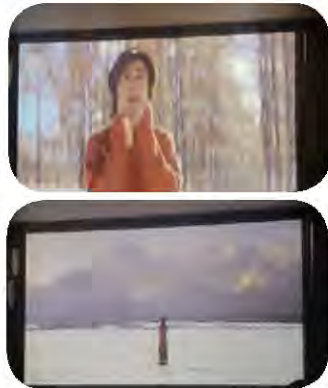


"죽은 남자친구에게 편지가 왔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레전드 첫사랑 영화 '러브레터'

영화 '러브레터'는 국내 개봉 당시 일본 영화 최초로 14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바 있다. 22여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가슴을 울리는 러브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최고의 멜로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끊임 없이 회자되고 있는 겨울 로맨스

영화 '러브레터' 대한민국의 겨울을 "잘 지내시나요"라는 가슴 저린 외침으로 물들였던 최고의 감성 멜로 '러브레터'는 '하나와 엘리스' 4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와이 지 감독의 아름다운 영상미와 당대 최고의 여배우 나카야마 미호

의 아름다움과 함께 감성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다. 하얀 눈 같은 순백의 첫사랑과 영상미, 작곡가 'Remedios'의 서정적 음악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영화는 지금 다시 봐도 세련된 영상미와 감성 자극하는 스토리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영화 줄거리

악혼자 후지이 이츠키가 등산 도중 조난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고베에 살고 있는 와타나베 히로코는 아직 그를 잊지 못한다. 훗카이도 오타루에 있는 그의 고향에서 치러진 2주년 추모식을 찾은 히로코는 그곳에서 악혼자 이츠키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한다. 복잡한 마음에 그곳에 적혀 있는 이츠키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놀랍게도 '후지이 이츠키'에게 답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편지는 악혼자인 후지이 이츠키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그와 이름이 같은 여학생 후지이 이츠키가 보낸 것

이다. 히로코는 자신의 악혼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여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앨범을 다시 찾아본 다음, 그녀가 자신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호기심과 그리움에 이끌려 히로코는 그녀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히로코의 연인 아키바 시게루는 여전히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를 보며

착잡한 감정을 갖는다.

한편 히로코와 편지를 주고받는 이츠키는 고향에 남아 도서관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다. 히로코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츠키는 중학교 시절, 자신과 이름이 같은 남학생 이츠키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 장르 : 드라마, 멜로/로맨스
- 개봉일 : 1999.11.20.
- 러닝타임 : 117분
- 감독 : 이와이 지
- [국내] 전체 관람가
- 출연진 : 나카야마 미호(후지이 이츠키/와타나베 히로코 역), 카시와바라 타카시(소년 후지이 이츠키 역), 토요카와 에츠시(시게루 아키바 역)



[백투더 시사회 평점]

오늘에서야 다시 꺼내봅니다. 당신이 머문 곳에서...

"가슴이 아파 이 편지는 차마 보내지 못하겠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했던 그녀, 와타나베 히로코.
"이 추억들은 모두 당신 거예요." 첫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녀, 후지이 이츠키.

참가자	감상평	기억에 남는 장면	추천하고 싶은 사람	평점
원지현 (17)	"오갱끼데스까"라는 명장면만 알고 있었고, 멜로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배경(계절)과 연출 등 인상 깊게 볼만한 영화	주인공이 도서관 후배들에게 받은 도서관 뒷면에 자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장면.	사대부고 1-2 김수현	★★★
정자은 (17) 사대부고	옛날에 있던 이야기에 편지로 시작된 호기심이 실제로도 남에게 일어날 법한 이야기라 흐름이 좋았다. 여러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 좋았고,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영화이다.	영화 엔딩 전, 해돋이와 산이 나온 장면	사대부고 1-2 김수현	★★★★
권수민 (17) 진주여고	이츠키가 이츠키를 사랑하는 것은 플라토닉도, 에로스도 아닌 아가페다.	영화 후반부, 주인공이 도서관 후배들에게 받은 도서관 뒷면에 자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장면	최예리	★★★★★
김민수 (17) 명신고	아름다웠던 영화였던 것 같다. 애뜻하고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한 영화를 보는 게 오랜만이라서 좋았고, 정말 설명할 수 없도록 좋았던 것 같다.	산에서 오갱끼데스까? (잘 지내나요?)라고 소리친 장면	사랑하는 사람	★★★★★
진가희 (17) 중앙고	잔잔한 배경음악과 계절이 겨울이어서 너무 잘 어울렸다. 그리고 제작 시기에 비해 완성도가 높았다. 요즘은 자극적인 영화가 많은데, 오래간만에 보는 장르라 더 와 닿았다.	도서관 뒷면에 자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장면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
민세연 (17) 선명여고	초반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별로였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재밌었다. 이츠키와 이츠키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츠키(남)가 이츠키(여)의 집에 찾아온 장면	최소원, 김가은, 갑자기 첫사랑이 떠오르는 사람	★★★★★
한경연 (18) 삼현여고	평소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어서 보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겨울과 맞아서 아련한 분위기가 더욱 더해진 듯하다. 명장면인 오갱끼데스까?를 외치는 장면에서 이츠키가 감정이 북받쳐 올 때, 내가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가슴이 아렸다.	마지막 주인공이 도서관 뒷면에 자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	중앙고 2학년 김성빈	★★★
최은서 (17) 중앙고	처음엔 오래된 영화라 딱히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기대가 없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스크린에서 눈을 떼 수 없을 정도로 재밌었다. 이 영화로 멜로라는 장르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한 장면이 이 영화에서 따왔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로웠고 다시 보게 되는 장면이었다.	이츠키(남)가 이츠키(여)의 집에 찾아온 장면. 만약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결말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휴식을 주고 싶은 사람, 추억을 회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김서진 (17) 중앙고	이영화의 아주 유명한 대사는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남자 주인공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과 닮은 남자 주인공의 연인의 얘기가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풀어가는 신박한 소재였기 때문에 옛날 영화이지만 촌스럽다는 느낌 없이 정말 재미있게 봤다.	영화 후반부, 주인공이 도서관 후배들에게 받은 도서관 뒷면에 자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장면	나와 영화 보는 취향이 비슷한 친구, 엄마	★★★★★

내가 여주인공 이츠키였다면 어땠을까?

한경연 기자(삼현여고2) 어렸을 적 동명이인이므로 잦은 놀림을 당할 때에는 싫기도 하고 짜증이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츠키와 단둘이 있을 때는 좀 달랐을 것 같다. 분명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끌렸을 것이다. 몰랐을 뿐. 어른이 되고 히로코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이츠키의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고 아렸을 것 같다. 또, 마음 한 편에서는 히로코가 안쓰러우면서도 도서관 카드에 새겨진 이츠키의 마음들이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으로 오랜 시간 간직할 것 같다.

권수민 기자(진주여고1) 이츠키와의 감정선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진짜 이츠키는 첫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 그때 그 감정이 사랑인 줄도 몰랐던, 모든 게 처음이라 그게 사랑인 줄도 몰랐던 그 감정과 이츠키의 사랑을 느끼고 이츠키와 함께했을 것 같다. 마지막에 이츠키의 사랑을 돌려주는 히로코에게, 용기가 없어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다. 나는 이츠키와 함께하고 싶다.

진가희 기자(중앙고1) 첫사랑을 몰랐지만 뒤늦게 발견한 도서관 카드 뒷면에 그려져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랐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알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다. 집에 찾아왔던 그날이 마지막이었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자신과 닮은 여자와 사귀었다는 사실도, 재난을 당해 죽었다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츠키가 묻혀 있는 곳에 추모하러 매년 갈 것 같다.

넷상 리뷰



★★★★★ 9.10 5,780명

▼가슴이 울컥했다. 나 잘 지내요. 당신도 잘 지냈으면 해요. 당신도 잘 지냈으면 해요... 정말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장면은 마치 알리스타가 원당을 지켜주는 장면 같았다. (acca****)

▼이츠키가 히로코를 만나자마자 고백했다는 것이나, 프로포즈할 때 2시간이나 망설였다는 것이나, 정황상 첫사랑인 이츠키를 히로코에게 대입했던 것이

라고 생각한다. 히로코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본 나에게는 가슴 아픈 영화. (ggog****)
▼모르고 지나친 마음을 알게 된 여자와 몰랐던 좋은 마음을 알게 된 여자. 아자아자 파이팅(elic****)



★★★★★ 9.2 700명

▼20년 전 풋풋한 대학생일 때는 그냥 약간 슬픈 영화였다.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보니 더욱 아련한 마음이 드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린 세월의 아스함인가. (똥사과****)

▼코끝이 시려지기 시작하면 매년 아련하게 생각나는 영화. (지금 여기)

▼너와 나, 우리의 첫사랑의 이야기. (민아샘)

[취재/ 권수민(진주여고1), 한경연(삼현여고2), 진가희(중앙고1)기자]

[#네임태그] 필통 인물 탐색기

학교 이름이 내 이름 이라면?

<필통 인물탐색기>는 여러 가지 재미있고 다양한 기준이나 공통점으로 특별한 친구들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저번 호 긴 이름을 가진 친구들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진주에 있는 학교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봉원, 개양, 제일, 중앙, 기공, 진주, 대아, 명신, 경해, 삼현...등등 그 많은 학교 이름만큼이나 같은 이름이름을 쓰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기대 했지만 의외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4인 5문 5답

1 간단한 자기소개

2 자신과 같은 학교 이름을 보고 느낀점

3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4 이름에 관련된 에피소드?

5 하고 싶은 말



지수중학교와 같은
조지수

- 1** 안녕하세요! 경해여고 2학년 1반 조지수입니다!
- 2** 처음에 진주에 지수중학교가 있다고 들었을 때 이름이 같을 뿐이지만 너무 신기했고 저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괜히 뿌듯했어요! ㅎㅎ
- 3** 사실 이름으로 놀림 받은 적이 많아서 이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바꿀 수 있다면 원래 이름이 될 뻔 했던 조소향으로 바꾸고 싶어요.
- 4** 에피소드까지는 아닌데 수학시간에 지수 같은 게 나오면 친구들이 동시에 다 쳐다보거나 사회시간에도 무슨 지수 같은 게 나오면 친구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네요.
- 5** 경해여고 2학년 1반 1번 강민주 키 152.3!!



진주고 진주여고 진주중 진주여중과 같은
박진주

- 1**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제일여고에 다니고 있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 2**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주여고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정표를 받았을 때 엄청 울었죠..
- 3** 흠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진주에 사는 진주라니 특별하지 않나요? 마치 창원에 사는 김창원 같은 느낌?
- 4** 중학교 때 체육선생님이 절 보시곤 오빠는 마산이고 언니는 창원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늘 진주에 사는 진주라는 별명도 익숙하구...^^
- 5** 우왕~ 나 필통 나왔어! 보통 여기선 연락처 적고 연락하라고 하던데 그.. 그럼 저도 010 5543 446...



진서중-고등학교와 같은
송진서

- 1** 저는 곧 명신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학년 송진서입니다.
- 2** 처음엔 잘못 본 건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깐 진짜로 있어서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 3** 제 이름은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봐서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없네요.
- 4** 부모님이 절 낳고 고모랑 같이 절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스님이 진서랑 진서 중에서 고르라고 했답니다. 대부분이 진서로 하자고 하고 스님도 진서가 더 나을꺼라 해서 지금 제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 5** 이름보다 성으로 더 많이 놀림 받았는데 주위에 송씨인 분들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경진고등학교와 같은
박경진

- 1** 안녕하세요! 경남예술고등학교 1학년 플롯 전공 박경진입니다!
- 2** 경남 진주의 줄임말이 경진이라서 실제로 진주에 경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도 많은데 경진고등학교도 있어서 놀랐고 신기했습니다.
- 3** 개인적으로 '혁' 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서 '혁' 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 4** 친구들이 실제로 경진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 가지고 학생신문에도 실려서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 5** 딴 사랑해!!

[취재/ 김정빈(진주고2), 정병훈(진양고1)기자]

[필통 그 후] 2015년 5월호 그달의 인물, 하지혜

앗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전 서울에서 여전히 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년 반 전 필통의 표지모델, 명지대 실용무용과에 재학중인 하지혜씨>

요?
A. 너무 많아요. 춤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제 기준에서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했고 나이도 많아졌고 얼굴에 구멍도 많이 생겼고 몸에 그림도 많이 생겼어요. ㅋㅋㅋ 마인드도 변했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ㅋ

Q. 춤을 추면서 힘들었던 적은 있나요?
A. 당연히 있죠! 일단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다 보니 기초가 안 되어 있어 그것을 배우야 하잖아요. 또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끼도 얼마 무시한 친구들을 보면 기가 죽기도 했었구요. 일단 창작의 고통과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택한 길이죠.^^

Q. 과거 인터뷰 때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꿈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으신 것 같나요?
A. 인터뷰 했을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다가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잘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Q. 춤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먼저 학원을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학원은 입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저 혼자 힘으로 준비를 했고 이렇게 대학도 다니고 있으니까요. 대학에 와서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겁 먹고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

어요.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웠다고 해서 다 잘하지도 않고 스승님이 없다고 해서 못하지도 않아요. 즉 누군가한테 얼마만큼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시간이라도 어떠한 자세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저 또한 대학에 와서 뼈저리게 느꼈고요.(혹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면 따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Q. 과거 부장을 맡았던 삼현여고의 '블랙십' 후배들에게 한마디?
A. 아직까지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스럽고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얘기해주고픈 게 있다면 무대 위에서는 자기 자신이 최고다. 연예인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끼를 맘껏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들 끼가 많아서 잘 하겠지만^^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업도 잘 챙겨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았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A. 사실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도 제 인생에 큰 계획이 있다면 후회 없이 사는 것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부당한 일 당하면 싫다고 말하고 그냥 후회 없이 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내 인생에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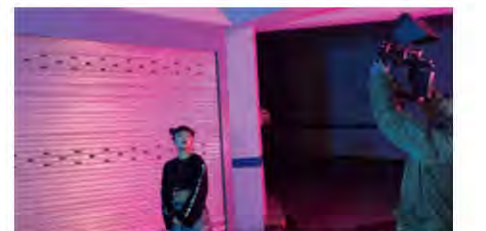
Q. 다시 필통과 인터뷰하게 된 소감은?
A.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아직도 저를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싶어서 놀람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죠. 더 열심히 성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또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기도 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하고 고2때 인터뷰하던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로써는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다시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에서 안무 연습중>



<다양한 활동을 하며 능력을 키우고 있는 하지혜씨>

[취재/ 강아영(삼현여고2)기자]

Q. 누구신지 알려 주세요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삼현여고 졸업생이자 현재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용무용과에 재학 중인 하지혜입니다. 필통 2015년 5월호의 표지인물이었어요^^. 3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Q. 이달의 인물에 소개 된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A. 중간에 춤을 추지 않았던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현실에 맞춰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많았었죠. 행복했던 1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춤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Q. 3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

[I'M FASHION PEOPLE] 오늘은 뭐 입지?

나를 표현 하는 것 & 내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오늘 뭐 입지?



황재현 (명신고 1학년)

"옷을 입을 땐 남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눈에 이쁘면 장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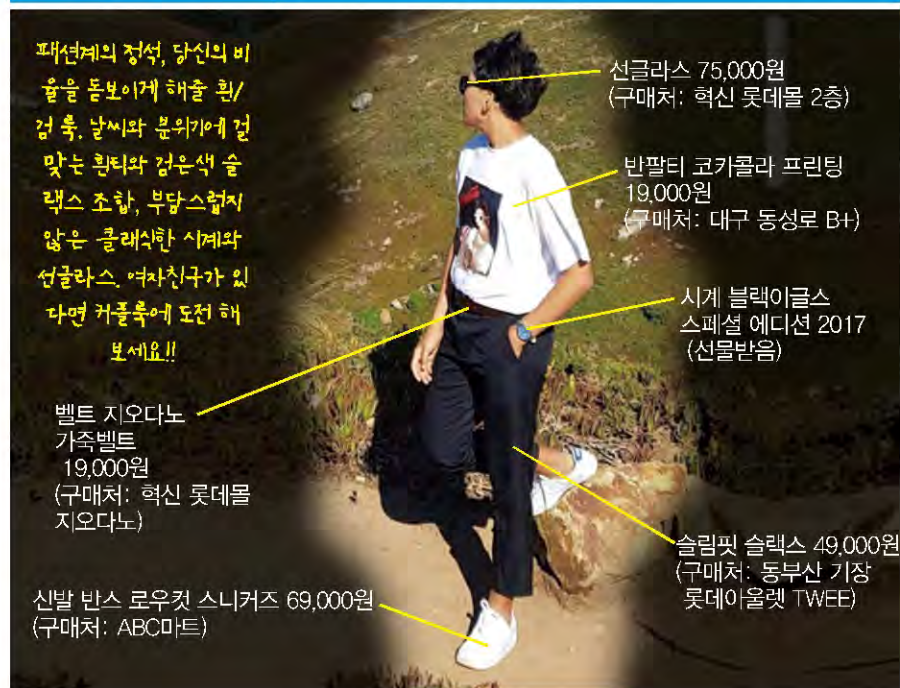
FASHION PEOPLE

하현지 (삼현여고 1학년)

"패션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TYPE 1

여자친구가 있다면 커플룩에 도전



TYPE 1

시켜줘, 명예 기리보이~



TYPE 2

가을타는 당신을 위한 가을남자 코디



TYPE 2

지난 가을을 생각하며~ 등산룩!



Q. 나에게 패션이란? 형식적이고 틀에 박혀있지 않아 매년 내가 내키는 대로 소화할 수 있어 나를 설레게 하는 것. Q. 나만의 옷 입는 팁 옷 입는 팁은 계절에 맞는 색감을 이용하는 게 좋다. 겨울에는 포근하고 온화함을 줄 것 같은 색을 입는다. 옷을 입을 땐 남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눈에 이쁘면 장땡, 할아버지의 체크 자켓도 예쁘게 소화가능!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것 같은)의 포인트를 살리자! Q. 가장 좋아하고 애용하는 브랜드는? 요즘은 유니클로가 맘에 들던데요! 자주 애용합니다. Q.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빈티지한 레트로 느낌과 코듀로이 재질의 복고패션을 소화해보고 싶네요. Q. 요즘 눈독들이고 있는 옷이 있다면? 요즘 캐시미어 체크 피 코트나 캐시미어 남색칼 피 코트가 눈에 엄청 들어와요. Q. 하고 싶은 말 패션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패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입고 싶은 옷을 계속 도전할 겁니다. 보잘 것 없지만 필통에 나오게 된 건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Q. 나만의 옷 입는 팁? A. 옷을 사기 전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입을 건지 상상해보고 삽니다. Q. 나에게 패션이란? A. 한 마디로 날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Q. 가장 좋아하고 애용하는 브랜드는? A. 요즘 아더에러 리는 브랜드가 좋습니다. Q.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A. 요즘 코트 같은 깔끔한 옷들이 저의 도전을 자극 시킵니다^^ Q. 요즘 눈독 들이고 있는 옷이 있다면? A. 아더X키츠네 니트 Q. 하고 싶은 말 A. 필통이 반에 배부될 때마다 항상 관심있게 읽었는데 막상 제가 필통에 실린다니 기분이 이상하지만 무척 기뻐요! 짧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 필통이 되어 주시고 다양한 친구들의 패션 소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맛집 검증] 시내 중앙동 O간돌이

알쓸신잡3 진주, 바로 그 집 국수, 육회비빔밥, 그리고 떡국을 기억하다

먹방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SNS상에서는 맛있는 먹거리뿐 아니라 맛있게 먹는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명한 맛집들의 홍보와 후기들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필통에서는 진주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의 SNS에 유명한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을 직접 찾아 그 맛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시내의 한 허름한 식당

O간돌이 입구! 사진 처럼 식당 입구가 이렇게 생겼다. 가게 입구부터 맛의 신뢰가 느껴진다. 요즘은 어딜가든 체인점이 좋은 자리에서 대중적인 입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환경인데 이렇게 작은 가게가 그 속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란 쉽지가 않다.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오랜 추억과 함께 사랑받는 식당이지 싶다.



진주 O간돌이

시내 중앙요양병원 사거리
전화번호 055-742-3937
진주시 축석로 165
10시 부터 ~ 17시 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휴무



오후 5시까지만 영업

영업시간은 매일 10:00 - 17:00/ 1,3째 일요일은 휴무다.

기본적으로 번호표를 뽑는 대기줄은 없으나 가게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잘 가야한다. 식당 안 테이블이 적어 모르는 사람이랑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놀라지 않아도 된다.

(기자들은 오전 11시에 갔으나 20분정도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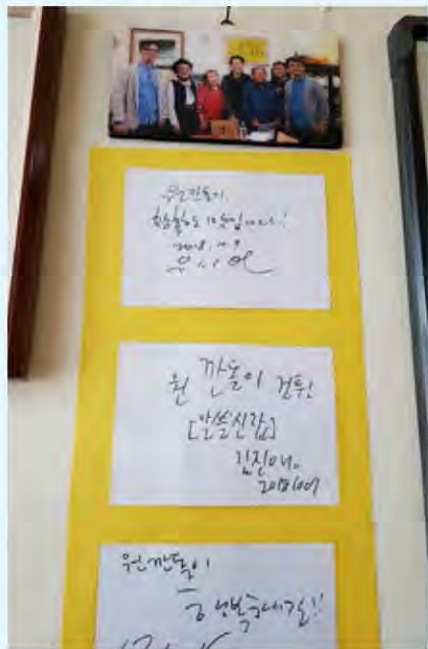


TVN 알쓸신잡3, 방송 된 바로 그 맛집!



지난 10월 방송 된 TVN 알쓸신잡3에서는 진주 특집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알쓸신잡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즌 3를 맞고 있는데 시작과 함께 피렌체를 돌아 독일편에 이어 이번에 국내편으로 이어졌는데 그 첫 촬영지가 바로 진주였다. 바로 그 진주에서의 촬영 장소가 숨은 맛집 (O간돌이)였다. 이번 진주 편에서는 역대 방송과 비교해 제일 소박한 맛집을 찾았고 알쓸신잡 멤버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골목의 자그마한 식당에서 진주 대표 음식인 진주 육회비빔밥부터 가오리무침, 낙지숙회, 국수까지 종류별로 맛을 보며 맛깔난 이야기가 이어졌고 시청자들에게 소개되어졌다.

가게를 들어오면 지난 10월 26일에 방영된 알쓸신잡에서 나오는 MC들과 찍은 기념사진과 유사민등 전체 MC들의 싸인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위에서부터 떡국, 비빔국수, 육회비빔밥, 물국수다.>

말 그대로, 싸고 맛있는 집

진주 유등축제 때 알쓸신잡 촬영을 진주로 왔다는 소문이 짝 퍼졌는데 알고보니 진주 시내 국수 맛집인 원간돌이에서 토크 촬영을 했다고 한다. 진주 국수 맛집 O간돌이는 굉장히 오래된 식당으로 진주 사람만 아는 숨은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들리는 얘기로는 식당에선 촬영을 거절했는데 섭외 전화가 몇번이나 와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다고 한다.

대부분 이런 오래된 맛집은 어쩐지 불친절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의외로 매우 친절하셨다. 홀에 테이블이 네개로 아주 작은 식당이다. 식당이 오래된 것치고는 테이블과 의자는 상심? 했고, 이모님들께서 꼼꼼히 관리하시는지 청결상태는 좋았다. 안쪽에 방이 있고 방 안엔 테이블도 몇 개 더 있다. 홀 테이블이 다 차니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간다.

육회비빔밥과 국수가 유명한 집인데, 의외로 다른 메뉴도 많다. 한 쪽 벽에는 2001년에 발행된 신문이 붙어 있는데 당시 기사에 '20

년 노하우...' 라고 쓰여 있으니 엄청 오래된 맛집임은 확실하다.

2001년에 국수가 3천원이었는데 지금은 4천원!! 요즘 물가 오르는게 장난 아닌데 정말 감사한 가격이다. 깔끔한 반찬도 인상적이다. 반찬접시에 상호를 짐작케 하는 그 '원자가' 적혀있다. 반찬그릇도 어느 할머니 댁에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다. 반찬들이 정말, 시골집에서 해먹는 그런 스타일이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가 해주신 듯한 느낌을 가질 듯 하다. 된장도 심지어 집된장이다.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을 6천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육회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적다 싶을 정도는 아니다. O간돌이 육회비빔밥을 주문하면 소고깃국이 따라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 말 그대로 진한 국물 맛이다. 국물만 몇 그릇을 추가로 시킬 수도 있다. 왜 국밥은 안 팔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식당 내부 모습. 테이블 4개, 방 하나가 전부다.>



일반반찬으로는 된장,고추,동치미,어묵볶음,무생채,김치,소고기 무국이 나온다.>

있는 그대로 맛 검증!

장은영기자(진양고 1학년) | 육회비빔밥은 고소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특별한 맛이 아닌 평범한 맛이었다. 비빔국수는 오이와 상추, 파 등의 야채가 들어있었다. 비빔국수는 새콤한 맛을 가장 많이 냈고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서 먹는 내내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었다. 물국수는 육수에서 멸치 맛이 많이 나고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국수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떡국은 메뉴판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기대를 안했지만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다. 국물을 마시면 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굴이 들어있는데 굴과 떡과 국물을 한 번에 먹으면 시원한 국물 맛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평범한 맛의 음식이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은 퀄리티의 음식이었다.

김민수기자(명신고 1학년) | 먼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식은 따뜻했던 떡국이었다. 오전시간부터 식당 앞에서 기다려서 그런지, 추웠던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떡국과 국물을 먹으니 속이 따뜻해져 기분이 좋았다. 육회비빔밥은 맛있었지만 육회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물국수와 비빔국수도 맛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음식이 평균 이상의 만족을 주는 것 같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광고로 만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아닌 허름한 골목안 가게가 왜 맛집으로 유명해졌는지 알 것 같았다.

정의찬기자(진주고 2학년) | 원간돌이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물국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만큼 맛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비빔국수가 많이 맵지 않고 단맛이 강하여 입안은 물론 온 몸을 만족시키는 맛이었다. 떡국은 간을 강하게 하지 않아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굴과 기타 재료들이 잘 어울렸다. 육회 비빔밥은 처음 먹어봤지만 일반 비빔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조금은 실망했다.

손님들의 맛 평가

J고 3학년 P양 |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맛집이라고 하길래 기대에 부푼 채 친구랑 시간을 내어 왔어요. 친구 입맛에는 너무 밍밍하다고 했지만 제 입맛에는 자극적이지 않고 딱 적당하여 먹기 좋았습니다. 다른 음식도 한 번씩 먹어봐야 겠다 싶어요. 숨은 맛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 시민 Y씨 | SNS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가족끼리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라 식당이 너무 허름해서 조금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먹어보니 가족들이 모든 음식들이 맛이 좋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간을 심심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제 입맛에 딱인 것 같습니다.

춡다! 체육복 등교를 허하라

기모 스타킹만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여학생들...

겨울이 왔다. 추운 날씨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은 저마다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등교를 한다. 롱패딩, 핫팩, 목도리와 더불어 교복 치마를 입는 학생들은 기모 스타킹으로 추위를 견디곤 한다. 하지만 과연 학생들은 추위를 호소한다. 왜 등곳질이 추워야만 하는가?

기모 스타킹을 신고 등교한 학생 10명에게 물었다. '다리가 춥지는 않나' 라는 질문에 9명은 '춡다. 체육복 바지 입고 싶다.' 라고 답했으며 단 한 명만이 '참을 만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여고에서 '3학년 체육복 등·하교 허용해주세요'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뽕뽕한 셔츠와 허리·배를 조이는 치마가 수험생의 피로감을 높인다'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교만이라도 편하게 입고 교문을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게 문제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겨울철 학생들의 이런 호소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년 '체육복 등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똑같은 결론, 체육복 등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 학교는 없다. 대신, 학교 측은 대책을 내놓곤 한다. '롱패딩으로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건 어머니', '교복 바지를 사서 입는 건 어머니', 교육지책, 물론 이 또한 학교측에선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롱패딩을 입어라.' 라는 학교 측의 대책은 롱패딩을 살 수 없는 형편의 학생들에게는 정말 아무 말도 아닌 무대책이다. 롱패딩의 가격은

기본 수 십만원이다. 학생들에게 쉽게 얘기할 만한 대책은 아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추위에 발발 떨고 있으라는 학교의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이야기다.

'교복 바지를 입어라.' 이미 사 둔 교복 치마를 방치해 둔 채 교복 바지를 굳이 하나 더 사서 입으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부병 등 이유가 없는 이상 여학생의 교복 바지 착용은 교칙 상 허용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교복은 그 자체로 장점도 많다. 학생임을 한 번에 알아차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교복에 불편함이 있다면, 또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복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학생들은 밧을 부리고자함도 아니고 반항하기 위한 도구로 학교의 복장규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학생들이 입는 옷 정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걸같이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차림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요만 해서 될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취재/ 하수진(사대부고2)기자]

본적도 없는 교사를 평가하라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 1년에 한 번쯤은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관한 안내장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안내장을 받고 별 생각 없이 바로 쓰레기 통으로 버리거나, 가방 속에서 묵혀놓고 기간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발견한 기억이 있지 않다. 또한,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참여도가 저조해 학교 측에서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컴퓨터실이나 교실 내 컴퓨터로 반 전체 학생들이 돌아가며 조사를 했던 경험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하는 학생만족도 조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부모들이 해야 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선생님의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

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교사의 수업과 지도 능력을 함양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만족도 조사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과목 선생님을 평가하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장과 담임교사는 필수선택이고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과목 선생님들은 물론 담임교사조차도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심지어는 교사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당연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유치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의 학부

모는 30.68%, 고교생의 학부모는 20.05%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항은 '선생님은 자녀와 상담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지도합니다.' 등 해당 교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또한 자녀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직접 만나보지 않는 이상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참여도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한 학교는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학생이 학부모조사를 대신하여 하는 작성하는 경우도 변변치 않게 있다. 이럴 경우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이 하게 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질은 잃게 되고 만다. 조사의 목적인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지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도 없고, 학부모에게는 눈

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원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생들과 학부모의 생각을 반영해 조금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하나의 의미 없는 요식행위나 귀찮은 일거리가 된 것은 아닐까? 과연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이 가능한지, 아님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인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취재/ 김서영(경해여고1)기자]

급할 때 타는 택시, 알고 타자

택시를 탈 때면 항상 궁금했던 질문들...

청소년과 택시?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등교하는데 버스를 놓쳐서,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 놀다가 혹은 읍, 면 지역의 친구 집을 찾기 위해 등등 청소년들에게도 택시는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가끔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택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택시기사 한 분을 만나 승차거부와 할증 등에 관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진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 김영식씨다.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진주는 2800원부터 기본요금이 시작한다. 심야(00:00~04:00)는 3360원부터 시작이다. 심야는 기본요금에서 20%를 더 받게 되고 모든 택시 미터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택시를 11시 50분에 타서 12시 10분에 내렸다면 11시 50분부터 59분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2시 0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계 외 할증은 35%가 기본요금에서 부과된다. 이것은 읍, 면, 택시비 할증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취재 기사가 항상 궁금했던 질문이 있다. 진주의 경우 명석은 시계 외 할증이 붙고 금산은 왜 할증이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16개면 마다 모두 다른 시계 경계지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지점을 지나야 할증이 붙는다는 말이다.

금산은 진성 고개를 넘으면, 문산은 예비군훈련소 운동장을 지나면, 명석은 티미널을 지나면 대곡은 불디 고개, 집현은 냉정마을 등 다 경계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 예외가 있다. 시에서 또 다른 시를 갈 때다. 다른 시를 갈 때는 35%가 아닌 20% 할증이 붙는다고 한다. 심야할증과 종합해보면 심야에 시에서 시를 가면 40%, 심야에 시에서 면, 읍을 가면 55%가 할증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승차거부도 궁금했다. 기본적으로 승

차거부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 건너서 타라고 하던지, 어디로 가 달라 했는데 안 가면 그것도 불법이다. 단 택시가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못 볼 수도 있고 손님이 타고 있거나 근무 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경우 골목까지 들어가기 미안해서 근처에 대중 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고객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내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택시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학생도 똑 같은 고객이다. 청소년 할인도 없으니 말이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택시 상식이 있다. 진짜 택시와 가짜 택시의 구별법이 있다. 불법 개조 차량이나 불법용 영업택시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노란색 번호판에 '하, 바, 사, 자'가 쓰여 있는 택시만이 자동차 운수사업용으로 정식 등록된 진짜 택시로 이런 글자가 쓰여 있지만 흰색 바탕이라면 이 또한 택시 차량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리기도 한다. 난감한 상황이지만 방법이 있다. 일단 카드 결제를 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1644-1188) 전화를 걸면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으로 해당 차량 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를 했다면 지역별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 보는 수밖에 없다. 차량 번호나 기사이름을 기억하는 방법도 좋은 습관이다. 소지품 분실에 대비해 택시 탈 때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취재/ 정민규(동명고2)기자]

[동아리탐방] 삼현여고 패션디자인 동아리 엘르

삼현여고 축제가 1월31일로 연기되었어요. 엘르 무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이들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다.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이 방법 중 하나는 '패션'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선을 주고,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패션을 읽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내는 동아리가 있다. 삼현여자고등학교 패션디자인부 엘르를 만나보자.



〈동아리부장 옥주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삼현여자고등학교 패션디자인 동아리 엘르의 부장 옥주희입니다.

Q. 동아리 소개를 해 주세요.

A. 저희 동아리는 삼현여고에 하나뿐인 패션디자인부 동아리로 1학년과 2학년 모두 합쳐 디자이너 3명, 모델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학교 축제에 서고 있습니다.

Q. 동아리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 패션 잡지 중 '엘르'라는 잡지 이름에서 따왔으며 삼현여고를 대표하는 동아리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모습〉

Q. 동아리 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동아리 특성상 축제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각자 자신의 드레스 디자인을 고안하여 디자이너들과 상의 후 동아리 시간 때마다 드레스를 제작합니다. 드레스 제작하는 일 뿐만 아니라 워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구두를 많이 신어 보지 않아 구두에 먼저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난 후 자세를 잡아가며 워킹연습을 합니다.

Q. 패션디자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의상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체중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자



〈워킹연습 하는 모습〉



신에게 맞는 의상 컨셉을 정하는 것과 워킹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Q. 패션디자인 부원 선발기준이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열정이겠죠. 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디자이너는 의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델은 외적인 면으로 키와 체형정도도 보고 있습니다.

Q. 패션동아리 엘르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자랑거리라고 하긴 민망하지만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저희 동아리는 매년 축제 무대에서 한복을 입습니다. 일반 한복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 한복'을 선보이며 무대를 시작하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Q. 무대에 직접 만든 드레스를 입게 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A. 아무래도 무대에 올라가는 모델의 수에 비해 디자이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이 힘들죠. 하지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델들도 기본적인 재봉틀 사용 방법과 바느질 방법을 익혀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을 주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체중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꿀팁이나 비법이 있나요?

A. 꿀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체중관리하는 방법은 하루 한끼를 먹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을 먹지 않는 이상 식단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게 먹는 걸 택합니다. 보통 점심만 배부르게 먹지만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날에는 저녁을 가볍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학교 축제가 다가오면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10~30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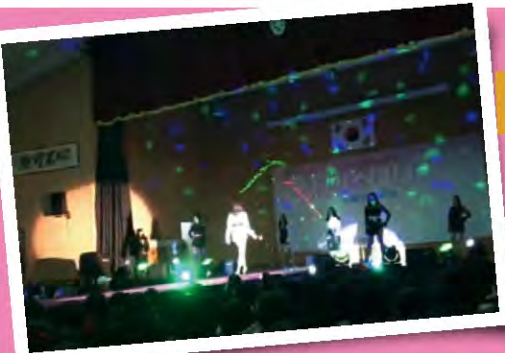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동아리 계획을 말해주세요.

A.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수하지 않고 후회되는 무대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꾸준한 연습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희 삼현여고가 이번에 12월이 아닌 1월 31일에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뿐만 아니라 댄스 동아리인 블랙칩과 다양한 재능 있는 친구들의 개인무대 등 볼거리가 많기로 유명한 삼현여고 축제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놀러 오세요~

2017 삼현여고 축제, 나의 소녀시대 엘르 공연 모습



밖에서 보이는 화장실? 왜?

문 없는 화장실... 사생활, 악취 문제 심각해

대부분의 건물이나 시설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그 공간들이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서로 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 존재한다. 바로 문이다. 문은 각 공간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통로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각각 그곳엔 문이 있다. 이런 문은 출입과 통로의 역할과 반대로 차단하고 막는 기능도 요구 받는다. 교실이나 학년실, 교무실 등을 문으로 막아놓는 것은 냉방이나 방한, 소음 차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부의 모습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는 가장 중요한 곳에 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그 장소의 특성 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특히 남

자 화장실의 경우 칸막이가 따로 없는 소변기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외부와 구분되는 문이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학생도 있을 수 있다.

화장실 문은 이런 기본적인 사생활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의 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로 화장실안 냄새가 밖으로 그대로 노출 된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이 없어 그 냄새가 외부로 아무런 여과 없이 방치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여름철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인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화장실을 가까이 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할 만 하다.

물론 학교마다 화장실의 사정은 다르다. 처음부터 화장실을 문이 없게 만든 경우도 있고 문을 필요에 의해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한 경

우도 있다. 진주 J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이 있었을 법한 화장실 입구가 아무 것도 없이 뚫힌 모습이다. 원래 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한 탓에 화장실 거울은 본래의 기능과 함께 화장실 내부를 훤히 비추는 반사판이 되어 버렸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인 것이다.

이렇게 문 없는 학교 화장실이 생기게 된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화장실은 학교내에서 조금은 격리되고 은밀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곳도 아니다 보니 흡연 등의 비행활동이나 학교폭력등의 교칙위반 행위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곳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화장실 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젠 좀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



들도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리현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기도 하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은 학교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위생상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효율이 그들의 사생활보호나 건강권에 앞 설 수는 없다. 이제 학교 화장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할 때다.

[취재/ 광병규(진주고1)기자]

생리공결제도, 당당하게 조퇴합시다

여성의 생리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당당히 요구해야...

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생리통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심할 경우 그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다.

생리통은 일반적으로 생리 시작 전이나 생리 기간 중에 느끼는 아랫배의 통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랫배 통증과 더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두통, 구토, 요통, 설사, 변비, 위통, 식욕감소, 피로, 불면증, 현기증 등을 포괄적으로 칭하여 '월경관련증'이라 부르기도 한다.

생리통은 하루만 아프거나? 일반적인 남학생들의 흔한 질문이다. 생리통을 언급한 신문 기사나 SNS에서 댓글을 보면 '생리통은 하루만 아프거나 아닌가?' 라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생리통은 월경 시작 전부터 시작되어 보통 2~3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월경 기간 내내 아픈 사람도 있다. 생리통은 자궁의 혈관 내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여 자궁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생리 결석'이 존재한다. 생리 공결제도란 지난

2006년 교육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초·중·고교에 도입한 것으로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이나 조퇴를 할 때 학교장 확인을 거쳐 월 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담임교사가 판단하며, 여학생은 누구나 생리로 인한 조퇴와 결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인정(공결)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생리 조퇴 제도를 몰라 결석하거나 조퇴할 경우 병결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인정 절차가 복잡



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생리는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날의 인류를 있게 한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생리통, 이젠 스스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존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부끄러워 고개 숙이며 생리통을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당당히 조퇴하고 출석을 요구하자.

[취재/ 강아영(삼현여고2)기자]

일방적인 시험성적 공개 사라져야!

민감한 개인정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성적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일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날, 누군가는 흥분한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망친 시험지를 들고 착잡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선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훗날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시험일' 것이다.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공부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생각할 때, 이러한 시험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고등학교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시험으로 인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매 학기 정기적으로 치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반복

되는 모의고사와 수행평가도 학생들을 '시험 스트레스'에 빠트리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런데 이런 실들없는 시험의 스트레스를 넘어 그 시험 성적이 모두에게 낱알이 공개된다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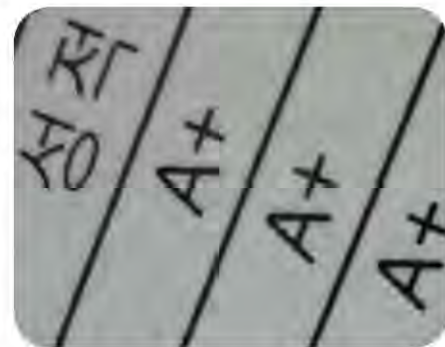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교실 게시판에 내놓고 등수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몇몇 학교에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문,이과 상위 20등 정도 학생들의 반, 점수, 등수 등을 복도와 교무실에 게시하는가 하면 영어, 수학 반 편성을 위해 시험 성적을 각 반에 게시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는 아자 반 편성 및 방과 후 교실 편성 시 일정 등급 이상 학생들의 이름을 성적순으로 공개 게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도를 불문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성적이 공개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시험을 끝내고 점수 확인을 위한 문서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싸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학생들의 명단과 점수가 기재된 문서를 교사의 감독 하에 본인 점수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장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학생들끼리 확인한 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확인방식이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방식은 개개인의 점수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 성적의 공개적 유출이 단지 교사들은 빠르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위해서인지, 학생들의 경쟁심리를 유도해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려는 교육적인 방법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생들 개인의 점수 공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들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과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한번이라도 물어 보았을까?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



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학교 또한 당연히 이런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식의 문제는 지양하고, 사라져야 한다.

더구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요즘, 정작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속에서 차별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순위가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취재/ 원지현기자]

급식소에 학생들이 먹을 밥이 없다니요?

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과 밥을 줄 수 없는 급식소,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들에게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입을 모아 '급식'이라 답할 것이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을 만큼 학창 시절 하면 곧 바로 급식이 떠올려진다. 또한, 한 참 성장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 보니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식욕을 채워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런 급식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사실 많은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달 진주의 K고등학교에서는 급식과 관련해 학생들의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일이 있었다. 황당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아예 급식을 못 받게 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약 30명가량의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10~15분 정도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고,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이 받게 된 급식은 기존 메뉴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다.

특히 이 날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이 나온 날이라 식사 시간을 기다렸던 학생들은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몇몇 학생들이 도대체 왜 원래의 식단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급식소 측에 물었으나 명확한 답은 들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분명 돈을 지불했고 급식 시간이 끝나기 전에 줄까지 서 있었는데 도대체 왜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걸까?

이유를 알고 싶다고,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학생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모르겠다'였다. 어떻게 학생들의 식단과 영양생활, 식재료를 관리해야 할 급식소 측이,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무책임하게 '모르겠다' '알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학교가 아니라 어른들

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같은 대응일지 궁금해진다.

결국 K고등학교의 급식 문제는 급식소 측에서 다음 날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학생들이 먹어야 했던 음식들과 학교에 지불한 급식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생들은 약속한 급식비를 내고 정당하게 충분한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급식소는 일반 영리기업과는 조금은 다른 마인드가 필요한 곳이다. 학교에서 급식 또한 교육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단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실패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는 급식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일 이런 일이 급식소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체계속에서 발생했거나 그 대상이 학생들이니까 괜찮다는 저급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면 분명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부디 모든 학교의 급식소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학생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급식소는 필요치 않으니 말이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D고등학교 실제 화재, 재난관리 0점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지난 11월 19일 진주 D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화재원인은 누전으로 보인다고 한다. 심각한 화재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과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알려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날 D고등학교에서는 오전 8시 50분 경 화재경보기가 잠깐 동안 두 차례 울렸다. 학생들은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시했다. 시간이 흐른 뒤 방송을 통해 교사가 대피명령을 하자 학생들은 그제서야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적지 않게 화재 대비 소방훈련이나 지진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아마도 그 훈련을 진지하게 임하거나 원칙대로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화재가 발생하니 여러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먼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다. 학교와 같은 넓은 공간에서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경보기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가장 빠르게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재시스템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번 D고등학교의 경우도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모두 늘 있었던 오작동으로 무시해 버렸다. 이렇듯 학교 내 경보기 오작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화재의 골든타임은 약 3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어 소규모의 화재가 큰 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 결국 교사가 직접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또한 대피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중앙현관 쪽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측면 계단을 통해 대피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몰리게 되었는데, 화재 상황을 늦게 인

지해 혼비백산한 학생들이 대피 과정에서 달리고 서로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는 학생도 있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계단에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에 자칫 대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두명이 넘어지더라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대처도 문제점이 있다. 상황이 종료된 후 학생들에게 입실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모든 학생이 교실로 들어갔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 후 화재에 대한 상황,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었다. 9시 10분경 방송 송출용 스피커에는 영어 듣기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큰 화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학교현장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재난 훈련을 하지만 실제상황을 접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실



제상황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오작동 경보기도 당장 없어져야 하고 학생들의 재난시 대응방법도 제대로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학교가 안전을 최우선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취재/ 김동민(동명고1)기자]

진주제일여고 등굣길, 안전한가?

서정인시의원, 등교시간 차량통행 전면제한 의회에 제안해

진주 제일여고 학생들은 등교 할 때마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아파트와 빌라들이 뿔뿔하게 들어선 학교 진입로는 주차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차량과 아침마다 바쁘게 오가는 출근 차량들로 뒤섞여 통행이 불가능한 지경이며 제대로 된 보행로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1월 12일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20분 사이 30분간 학교 후문 쪽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 수를 세어본 결과 약 150여대에 이르렀다.

진주제일여고총학생회와 별벌사탐동아리가 '대로변 하차'를 통해 안전한 등굣길을 확보하자'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아침마다 안전생활부장 선생님과 학교 지킴이 아저씨가 등굣길을 살피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엔 혼잡한 차량문제 뿐만 아니라 등굣길의 가파른 경사 때문에 빗물이 흘러 미끄러

운 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차량 통제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주제일여고총학생회와 별벌사탐동아리 부원들은 11월 9일 평소 학생 안전에 관심이 많은 진주시의원 서정인 시의원을 만났다. 서정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과 관련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그 심각성을 공유했으며 아침 등교시간 30~40분 동안 학교 주변 짧은 거리의 주동학로 통행차량을 전면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인 의원은 11월26일 의회에서 공식적인 5분 발언을 통해 '등교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아침 등교시간 동안 학교주변 짧은 거리의 주동학로 통

행차량을 전면 제한 제도를 시행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으니 이후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진주제일여고 1학년장은 진주 시청과 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에 학교 등굣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학생들이 직접 등하굣길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교통 문제는 제일여고만의 일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는가? 하루빨리 모든 학교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

[취재/ 민세진(진주제일여고1)기자]



<진주시 서정인 의원의 간담회>

[대학생 선배가 말하는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철학과를 찾아서

새로운 인문학의 시대 철학은 어느 학문보다 다양한



〈경상대학교 철학과 조우정씨〉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철학과에 다니고 있는 조우정입니다. 지금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왜 철학과에 오게 되었나요?

— 처음에는 심리학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적이 안 따라와 주더군요.(웃음) 그래서 심리학 대신 심

리학의 근본인 철학과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흥미도 있었고요.

Q.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 뭐라 정확히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기존 뜻은 세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세계에 어떤 본질이 나 진리가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현실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추세입니다.

Q. 철학과를 나오면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 솔직히 철학과를 나와 교수나 연구직이 아닌 이상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무슨 일을 하던 철학이란 학문이 기본 베이스가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어찌 보면 취업의 폭이 가장 넓은 학과이기도 합니다.

Q. 철학을 배우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 처음에는 철학사로 철학이 발달해온 과정을 배우면서 현대 철학까지 배운 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배웁니다. 그 뒤엔 더 세부적인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Q. 개인적인 목표가 있나요?

— 연재 윤리나 정치사회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 진로를 아직 명확하게 정하진 못했습니다. 명백한 목표는 없지만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철학과만의 매력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 아무래도 철학은 책을 많이 읽을 수 밖에 없죠. 평소에는 읽지 않는 책들도 공부하기 때문에 독서능력이 향상되고 논리나 흔히 말하는 능력, 말발(웃음)의 내공도 쌓입니다.



〈2018 철학과 졸업논문 발표회〉



〈2018 철학과 봄 발표 대회〉



〈철학과 토론회 활동모습〉

궁금해~ 철학과를 알려주마!



〈학과개요〉

철학과는 교육이나 정치학, 과학, 역사, 신학, 수학 등의 인접학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분과 학문의 기초가 되고 있으므로 철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모든 학문 활동을 보다 깊이 있게 조망해 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줍니다. 철학과는 인류 문화의 토대로서 동서양 사상문화가 수행해온 역할과 현대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생산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사상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권 사이의 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과내용〉

철학과에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서양의 형

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의 제이론들에 관한 여러 관련 내용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

[철학적 논리학] [존재론과 형이상학] [인식론] [한국철학사] [과학철학] [현대철학의 흐름]

〈관련자격증 & 졸업 후 진로〉

◇국가자격 : 사회복지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민간자격 :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상담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분쟁화해조정상담사, 라이프코치, 논술지도사 등

◇졸업 후 진로 : 게임시나리오작가, 기록물관리사, 방송기자, 방송작가, 사회교사, 소설가, 시인, 신문기자, 영화시나리오작가, 철학연구원, 교수, 논술지도사, 문화예술평론가, 생활코치, 중등학교 도덕윤리교사, 출판물기획전문가.

〈철학과 취업률〉

철학과 취업률 통계는 전체 41.8%로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취업률과 같은 실질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41.8%

전체

44.8%

남자

38.9%

여자



다.^^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인 사람. 흔히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인재죠.^^

Q.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을까요?

— 음... 굳이 뽑자면 마르크스가 아닐까 합니다. 기존까지의 인식의 틀을 부수고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는 행동에서 신선한 감명을 받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Q.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 가치관이 흔들릴 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깊게 공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를 받아들이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철학과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 평소 사고가 깊고 인문학적 질문이 많은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학과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과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한 번쯤이라도 가져보았다면 철학과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관심이 있다면 고민 없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요즘은 취업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철학과가 인문계에선 취업도 생각보다 잘 된답니다. 도전하세요.^^

철학과 정원과 입시경쟁률

우리나라 철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7곳! 각 학교의 정원과 2017학년도 입시 경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입학 정원이 가장 많았던 학교는 고려대학교(40명), 수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경희대학교(35.62), 정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숭실대학교(7.88)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명 ▲	지역	입학 정원	2017경쟁률	
			수시	정시
강릉원주대학교 [본교]	강원	23	2.76	1.77
건국대학교 [본교]	서울	27	26.77	6.17
경북대학교 [본교]	대구	22	14.47	5.56
경상대학교 [본교]	경남	31	4.57	4.36
경희대학교 [본교]	서울	37	35.62	6.5
고려대학교 [본교]	서울	40	25.2	3.13
단국대학교 [본교]	경기	20	12.43	6.11
덕성여자대학교 [본교]	서울	20	16.3	5.2
동국대학교 [본교]	서울	17	25.46	7.4
부산대학교 [본교]	부산	27	9.68	5.67
서울대학교 [본교]	서울	12	-	-
서울시립대학교 [본교]	서울	25	14.75	7.8
성균관대학교 [본교]	서울	12	6.58	-
숭실대학교 [본교]	서울	31	12.92	7.88
연세대학교 [본교]	서울	35	19.05	2.27
영남대학교 [본교]	경북	32	6.1	5.79
울산대학교 [본교]	울산	39	5.69	5.78
원광대학교 [본교]	전북	22	4.53	5.8
인하대학교 [본교]	인천	33	13.68	4.81
전남대학교 [본교]	광주	29	6.88	3.33
전북대학교 [본교]	전북	32	6.39	5
제주대학교 [본교]	제주	24	2.67	2.95
조선대학교 [본교]	광주	30	4	3.7
창원대학교 [본교]	경남	31	6.1	3.9
충남대학교 [본교]	대전	32	8.52	4.23
충북대학교 [본교]	충북	24	7.33	7.4
한양대학교 [본교]	서울	18	35.45	4.71

본인이 직접 원하는 것, 평생을 거쳐 탐구할 만한 것을 진로학과로 삼는 것이 좋겠죠? 철학에 뜻이 있고 흥미가 있는 학생들은 철학과를 한 번 지원해 보세요.

[취재/ 정민규(동명고2), 김수현(사대부고1)기자]

[JOB을 잡아라] 린드헤어, 김영경 헤어디자이너를 만나다

공감하고 소통하며 고객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디자이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직업의 사전적 의미다. 인류의 탄생 이래 먹고사는 일은 늘 고달팠다.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사람이 하는 일을 위협하고 있으니 '정말 어떤 일을 하며 먹고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이런 시대에 시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뷰티산업이다. 기계보다는 사람의 손길로 완성이 되기 때문이다. 뷰티산업의 대표주자, 헤어디자인의 세계를 린드헤어(가좌동) 김영경디자이너를 만나 미래의 직업을 상상해 보았다.



〈린드헤어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 김영경씨〉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거주하고 '린드헤어'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용을 한지는 8년 쯤 되는 헤어 디자이너 김영경입니다.

Q.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헤어디자이너를 단순히 외적으로만 꾸미는 전문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적인 부분에서도 더 아름답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흔히 뷰티 분야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피되는 헤어 디자인 분야를 시작했죠. 물론 제가 좋아서죠.

Q.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나요?

A. 요즘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미용 고등학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도 있죠. 물론 미용실을 와서 인턴 생활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Q. 관련 학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관련학과는 미용학과, 미용예술학과, 피부미용학과 등이 있어요.

Q. 학교 과정을 거치면 바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니에요. 무엇이든 전문가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죠. 미용실에서

Q.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은 무엇인가요?

A. 남자 분들은 역시 투블럭이 대세라 할 수 있어요. 여자 분들은 요즘 레이어드 컷이라고 층난 머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Q.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A. 헤어디자이너라는 것이 단순히 헤어스타일만 꾸미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의 생각과 스타일을 진단하고, 성향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A.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물론 에너지와 열정이 없다면 못하겠죠. 직업 특성상 오래 서 있게 되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수예요. 디자이너라는 일에 대해 열정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A. 저는 편안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처음 보는 손님들이 적어도 호감을 가지게 되고,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해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디자이너는 기본이구요.

Q. 헤어 디자이너를 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다면?

A.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같아요. TV 드라마를 봐

도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이 자꾸 눈에 밟혀 드라마 스토리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거는 바꿔야 하지 않나, 저 부분은 자르고 싶다. 등등 생각이 먼저 든다니깐요.

Q.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A. 호기심으로 도전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보았으면 좋겠고, 또 처음 배우게 되면 손이 많이 망가지게 되요. 부르트고 진물도 나고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용에 대해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헤어디자이너는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힘내서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더 고민하고 스스로 미용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면 시작하면 됩니다"

인턴생활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하루하루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이후 승급 테스트를 통과하면, 비로소 정식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Q.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A. 제가 초급 디자이너일 때, 처음으로 손님 머리를 컷해드렸는데 손님과의 소통을 잘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매우 짧은 머리의 손님께서 투블럭으로 잘라달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상모머리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손님 머리를 민 다음에,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갓파머리가 되었고 손님과의 트러블이 일어났었죠. 눈물을 쏟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어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Q.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나요?

A. 월급 형태로 가져가는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일한 만큼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디자이너분도 계시죠. 인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급 형태로 가져가죠.

Q.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헤어디자이너 되려면? 미용에 관련 된 학교나 학과 졸업하면 미용사 종합면허 주어져...

헤어디자이너는 학력제한이 없으나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용에 관련된 학교나 학과에 진학해 졸업하는 것이다. 졸업하는 동시에 미용사종합면허(미용일반, 피부미용)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한미용사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미용특수고등학교가 45곳,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미용학과가 130곳 있으며, 미용관련 대학원은 18곳이 있다.

최근 고등학교 때부터 헤어디자이너 및 미용관련 직종을 원하는 학생들이 미용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으며 어릴 적부터 미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미용고등학교에 진학해 최단기로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방법도 있다. 성인이 되어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꾀다면 미용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다. 3년제 혹은 4년제 미용학과에 진학해 졸업하면 미용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미용사종합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미용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인재를 육성시킬 목적이라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한다. 헤어디자이너는 학력제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미용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미용일반 면허증을 취득한다면 누구나 헤어디자이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용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원에서 미용이론과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등의 4~6개월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용실에 취업할 수 있다.

미용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총 60문제를 60분 동안 풀게 된다.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다. 매 주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대한 부담은 크게 안가져도 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면 본격적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실기는 가발을 이용한 컷트와 펌, 메이크업(세팅, 화장) 등 미용작업의 숙련도와 정확성을 2시간 20분 동안 평가한다.

미용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미용사 면허신청서와 첨부서류(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미용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으면 초급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으며 숙련도에 따라 정식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총 51만 3219명에 이른다고 한다.

헤어디자이너 적성이 맞는 성격유형은?

헤어디자이너/미용사는 고객의 외모, 용모를 다루어주는 직업으로 용

모를 다루는 미적감각&손재주 기술 등이 요구된다. 본인만의 스타일 기술을 익혀 고객한명 한명의 머릿결, 머리숱, 머리카락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을 뽑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노력,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각기 다른 성격유형에 고객들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또한 요구된다. 예술적으로 우선 감각이 뛰어나고 미용에 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합한 직업이며,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되기 위해선 적응능력과 인내심, 책임감, 사회성 등의 성격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참 유리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헤어디자이너 연봉

개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받는 급여 차이가 큰 직업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인턴, 스태프의 경우 100만원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다. 차츰 실력을 쌓다 보면 초급, 중급 디자이너에서 실장, 부장, 원장 등으



로 단계가 상승하게 된다. 어느 정도 숙련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본급 170~200만원에 인센티브 등 급여도 상승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개인 헤어샵을 운영하게 되어 입지를 잡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 월 1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헤어디자이너의 실력에 따라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는 스킬과 전문적인 기술의 숙달,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헤어 디자이너로써의 자질과 실력을 고루 갖추었다면 누구도 부럽지 않는 고액 연봉자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취재/ 김동민(동명고1)기자]



[글로벌미팅] 인도 유학생 Swati Das를 만나다

인터넷을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인도를 여행해 보세요

Q: 간단한 자기소개?

A: 제이름은 스와티다스(Swati Das)예요. 저는 인도에서 왔고 지금 경상대학교 응용 생명 과학과 Applied Life Science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Q: 인도라는 나라를 소개한다면?

A: 한마디로 인도는 다양한 나라예요. 아름다

운 풍경과 인도문화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 나라예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개발도상국이지만 정보 기술, 농업등은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Q: 인도를 가면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A: 그건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도의 각 지역들은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11월에 인도 hill station에 가서 아름다운 눈과 언덕을 보거나 바다 공궐, 왕궁을 여행하고 싶다면 서쪽을 여행하면 됩니다. 인도의 남쪽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Q: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A: 이유는 정말 많지만 사실 저는 박사학위를 신청하고 싶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당시에 지금 교수님이 한국을 강력히 추천해 주셨죠. 최고의 교수님 이시니까요.

Q: 한류가 인도에서도 대단하다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BTS예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는 K-POP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처음 방탄소년단의 DNA노래를 듣고 그들에게 빠져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Q: 한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A: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말에 너무 서툴렀죠. 그래

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봤지만 힘들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친절했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너무 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Q: 인도는 학원이나 아자 같은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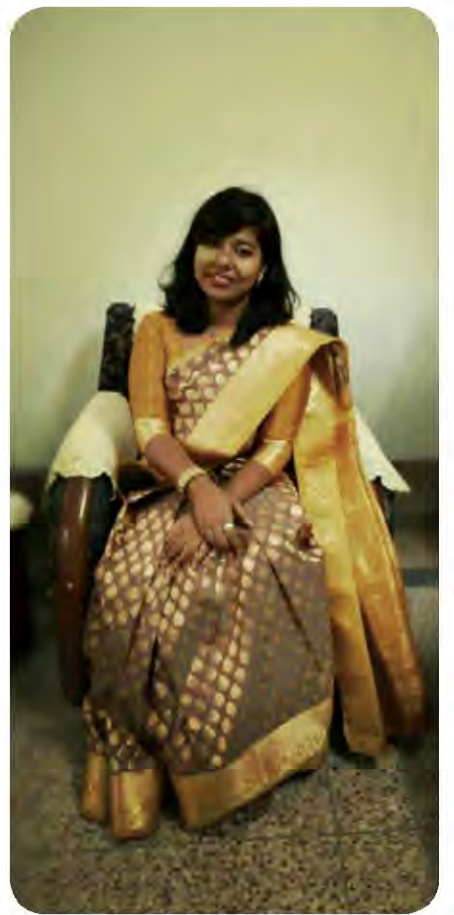
A: 인도는 학교를 보통 오후 4시에 마쳐요. 그 이후로는 집에 가서 남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는 언어에 관련된 학원들이 많아요. 학원은 3종류가 있어요. 힌디어, 영어,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이예요. 인도는 지역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써서 지역마다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말을 배우는 학원이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Q: 그렇다면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국은 한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인도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해요. 지리, 역사, 생명 등등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답니다. 면접을 볼 때 본인의 전공도 물어보지만 또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Q: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A: 인터넷과 책으로 영어 기초 문법을 익히면 좋아요. 그리고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영어로 된 자막과 함께, 그 다음에는 똑같은 영화



▲ 전통적인 사레(인도 전통의상)

를 자막 없이 보면 영어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는 많은 영화를 보며 제 영어실력을 향상 시켰어요!

Q: 마지막으로 진주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단지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항상 집중해야 해요. 많은 재밌는 것들이 인터넷에 있죠. 그러니 인터넷은 꼭 즐겨야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죠.



▲ 인도에 있는 Swati Das(스와티 다스)의 언니와 여동생

Hot한 인도소식!

인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촛불혁명이 실려 있다

평화적인 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한국의 '촛불혁명'이 인도 고교생 수백만 명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수록됐다. 인도 연방 표준 교과서를 만드는 국가교육연구위원회(NCERT)에 따르면 올해 새로 발행한 11학년(고교 2학년) 세계사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이끈 2016년 촛불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등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빛지고 있지만, 한국의 공화주의를 고양한 것은 시민의 높아진 정치의식"이라고 분석했다. 교과서는 '근대화의 길'을 주제로 한 11과에서 조선 시대 말부터 한국의 정치·경제적 근대화 과정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춰 6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서

술했다.

또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국의 경제성장이 민주화에 기여했는지 등을 연습문제로 제시했다. 10학년 역사 교과서에는 인쇄술의 발달을 설명하며 팔만대장경, 직지 등 한국의 인쇄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했고 12학년 정치학 교과서에도 한국 관련 설명을 보강했다. NCERT는 이들 교과서는 이미 각급 학교에 보급돼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학기 수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내 3만여 개 초·중·고교가 NCERT의 표준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년별로는 수백만 명, 전체적으로는 1억 명에 이르는 학생이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셈이다. 인도 주 정부 산하 기관이나 민간에서 만드는 교과서들도 NCERT의 표준교과서를 참고하기에 이번 개정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디왈리 축제에 떠나보아요~!!



'빛의 축제'라고 알려진 인도의 큰 명절인 디왈리는 온 마을과 집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히고 집 안팎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에는 화려한 폭죽을 터트리며 밤을 수놓지만, 다른 불꽃 축제와 확연히 다른 점은 온 마을과 모든 집을 등불로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점이지요.

디왈리(Deepawali)는 '초'라는 뜻의 'Deep'과 '빛'이라는 뜻의 'Wali'가 합쳐진 단어로 '빛의 축제'를 의미한다. 힌두 달력에 따르면 한 달은 14일간의 빛의 날과 15일간의 어둠의 날로 나뉘는데, 디왈리는 가장 어두운 밤인 여덟 번째 달(Kartika 카르티카, 양력 10월~11월 사이)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5일간 진행된다.

첫째 날인 단테라스(Dhanteras)의 'Dhan'은 '부유함'을, 'Teras'는 힌두 달력의 '13일'을 의미한다. 이 날은 풍요를 위해 금이나 은으로 된 새로운 집기들을 장만하고 집 안팎에 화려한 전통 문양을 그린다. 둘째 날은 나락 차투르다시(Narak Chaturdasi) 혹은 초티 디왈리(Choti Diwali)라 부르는데, 이는 마왕 나라카수라를 무찔렀다는 뜻이다. 크리쉬나 신이 마왕 나카라수

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그의 아내인 사티야바마가 크리쉬나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 주었다는 것에서 유래해 해가 뜨기 전에 오일 목욕을 하는 전통이 있다. 셋째 날인 락쉬미 뿌자(Lakshmi Puja)는 디왈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날로 재물과 부의 여신인 락쉬미가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운과 축복을 내려 준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온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등불을 밝히고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여신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다. 북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을 하는 풍습이 있다. 넷째 날인 파드와(Padwa)는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며, 다섯째 날인 바이두지(Bhai Duj)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남자 형제를 집으로 초대해 이마에 티카(붉은 점)를 찍어 주며 미래를 축복하고 우애를 다지는 날이다.

디왈리 기간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구석구석에 전구를 달아 온 나라가 반짝반짝하다. 이 모든 의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전구로 장식한 집과 온 하늘을 밝히는 폭죽은 건강, 지식, 부, 평화, 풍요를 위해 하늘에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디왈리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해피 디왈리!'를 외치며 인도의 달콤한 디저트 스윗을 나누곤 한다.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형민

꽃 무늬 바지가 잘 어울리는 형민아. 항상 볼 때마다 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고 가끔 보면 친회? 원숙이가 생각날때도 있어. 이렇게 된거 그냥 둘 중 아무나 하구 가끔 볼 때마다 니 얼 굴보고 힘도 나고 즐겁고 참 좋은 친구야. ㅎㅎ 이제 1년도 안 남았구. 수능 치고 즐겁게 놀자. 허구헌날 피시방만 가지말구- 수능치고 애들끼리 놀자... 뭐 지금도 피방 가긴 하지만 커서 24시간 풀로 해보자. ㅋㅋ 풀레 가면 즐겁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잘하고 우정 변치말자!!!

-From. 너의 친구



T.O.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부장이야! 예전부터 필통에 나가 보고 싶었는데 너네한테 편지 쓰는 걸로 나오게 되다니...

일단 이때까지 공연하느라 수고했다. 말은 진짜 겁나 안 들으면서 할 켜 다하는(?) 니들이 대단하다. 이제 남은 건 축제뿐인데 열심히 준비해보자. 특히 2학년들은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될테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축제 박살내고 1학년들은 몇 달 뒤면 너희가 알아서 다 준비 해야 하나만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는 지금 2학년들한테 물어봐.(먼저 나한테 오지마...)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고 이젠 말 좀 잘 듣자...



-From. 부장이야.

T.O. 권다움

안녕 다움아! ㅋㅋㅋㅋ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네. 편지 써 보는 건 처음인데 우리 만난지는 거의 11년 이 다 되가네. 초등학교 1학년때 만나서 매일 뽕따다 학교에서 같이 놀았는데 갑자기 니가 베트남으로 가버려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니가 우리 반 으로 전학 온 게 세상 신기했지. 난 니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다고X 거의 매 주 니 집에서 타고 놀았지. 니랑 있을 때는 다 큰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재미있었다고...(실제로는 말 못하겠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놀았지만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자는 것도 재미있음 우리 성인 되서는 돈 많이 벌어서 외국 가서 취미 생활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살자! 난 항상 너 응원하고 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 이거 보면 친친 봐라!



-From. 김현지

T.O. 쭈운

쭈쭈... 완전 오랜만이다. 니 만나러 삼현 갈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니가 야자를 안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막 고딩 되니까 삼현 생각나고 그런다.. 우리 2학년 때 완전 재밌었는데... 기억나니.. 진짜 시간 참 빠른 거 같아... 쭈운 쌤생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병원 차리면 나 꼭 꽃아줘. ㅎㅎ

생일 축하해♥♥ 사진 많이 사렸다. ㅎㅎ 시험 끝나고 삼현가면 꼭 좀 만나... 시간 비워나라...

-From. ?



T.O. 호떡mom

안녕 여기에 적으면 필통 신문 마지막에 담길 수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니가 보고 깜짝 놀랐으면 해서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전혀 눈치 채지 못했지?? 꼭 답장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어려웠어... 12월 호에 올라간다면 곧 크리스마스잖아! 그리고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이 딱 시험이 끝난 날이라면 같이 예쁘게 입고 놀러 가자~ 저번에 서울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서로 너무 바빠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너처럼 우리가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 3학년 밖에 없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고 있어... 같이 하지 못한 게 많아서 너무 아쉽다. 너랑 이번 방학 때나 축제 기간 때쯤 놀러 갈 기회를 노리고 있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테고 또 금방 3학년 이 되어버리면 그때 진짜 만나자는 말도 서로 못 꺼낼 것 같아서 서로 시간 맞추어서 꼭 같이 시간 보내자! 살도 좀 찌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같이! 고 민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친구들과도 더 더 잘지내야 해~



너의 그 해심을 잘 살려서 언제나 밝은 모습이면 좋겠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자기♥ Ps(이 편지를 보시면 꼭꼭 삼현여고 1학년 10만 공식 호떡mom에게 보여주세요!)

-From. @zessa_40e

T.O. 십블리~

블리블리 십블리~ 보고 있다. 나는 삼현 1학년10만 인싸 권도떡이다... 공도물, 김도남, 김도공, 이도갑, 강도뽕, 우리 정말 완벽한 6공주야. ㅎㅎ 처음 삼현 와서 모르는 사람들뿐이라 완전 긴장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같이 밥 먹고 우리들끼리 인스타계정도 만들고 잠도 같이 자고 너무너무 행복해. 수현이 생일때 너무 재밌었고 베게싸움 또 하자 다 팔라줄게. ㅎㅎ 다음 생일은 하은이집이니가 또 파티하자. 답답했어 우리 보면서 진짜 안 친 할거 같은데 완전 친하다면서 한번씩 팔짱해주 시자나. ㅋㅋㅋㅋ 역시 우리 완벽한 BF. 일학년 시작한지 며칠 안 되거 같아 보이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는게 슬퍼... 내가 2학년 되면 너네 무시할꺼라고 한거 다 거짓말이야. ㅋㅋㅋㅋ 팬날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할때까지 찾아갈게 일학년 마무리



잘하고 다 같이 양대가기로 했던 것도 기억나지? 우리 십블리 내가 많이 아껴♥♥♥ ㅎㅎ Ps. 요즘 인스타 게시물 안 올라오던데 1일 게시물 해라! 안 그러면 비번 바꿀꺼다.

-From. 권도떡

T.O. 명신 1학년 김도짱!

우리 사현에서 초등학교때부터 같이 운동했는 데... ㅋ ㅋ ㅋ ㅋ ㅋ 니가 나보다 더 못한 걸로 기억했는데 어느새 명신에서 선수하고 있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하아... 할 말이 없다. 앞

오로도 선수생활 열심히 하고 답에... 만나서 사 친구자! 마... 오글거림... 어쨌든 신대빵 핫팅 X

-From. 너의 스승님



T.O. 옥찌

지훈아... 솔로부대 재입대 축하하고...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현웅이랑만 오래가라...수련회 무대 모든 날, 모든 순간 지켰다... 노래 나올 때 마다 울지 말고!! ps. 옛날에 생일빵 못 챙겨 준거 미안타. 내년엔 꼭 줄테니깐 빵디 닥고 기다리라. 스름온드

-From. ?

T.O. 내 오른손 찬양

우리 끼요운 찬양아. 보고찌포, 혁신 좀 마니 와! 독서실에서 폐북 비활타고~ 물론 하지말고~ 나랑 놀자아... 찬양아! 내가 켈 사랑해 ♥♥

-From. 기엽선미





재즈의 도시 진주를 꿈꾸며...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청소년 50%할인

2018.12.06(목) - 12.08(토) / 오후 7시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출여지

1st Muzzart(벨라루스) / 웅산밴드

2nd Trio Laccasax(독일) / 마리아킴 & 허성 재즈 밴드

3rd For on Six Band(이탈리아) / Trio Laccasax(독일) / 인순이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 주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지오엔터테인먼트
후원 : 한국남동발전, 진주시 한의사회 / 문의 : (주)지오엔터테인먼트 055-743-6990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8년 12월 16일(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 32분을 추천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보통가등) 당첨도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간에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핑퐁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음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등 - 문상 1만원권(2명) : 감동우(진주고2-7)/ 배소민(중앙고1-2)

2등 - 문상 5천원(32명) : 김보경(명신고1-1), 이민성(명신고2-5), 강현빈(진주기공2-5), 김용훈(진주기공1-6), 최정우(대야고2-10), 김성윤(대야고2-4), 임지수(제일고2-4), 김나루(제일고1-8), 구연진(선명고2-1), 허성진(진주고2-4), 김미구(강해고2-2), 강현준(강해고1-11), 박정현(삼현고1-6), 김나현(삼현고2-1), 김세진(장안고1-6), 이재원(장안고2-3), 차성윤(대야부고2-3), 박준(사대부고2-6), 유현석(동명고1-7), 이진규(동명고2-10), 박재연(진주여고1-6), 강나리(진주여고2-7), 김해원(중앙고2-4), 강은혜(진주여고1-2), 이한성(경상자동차고2-5), 황태현(진서고1-1), 신동원(경남과학고1-5), 최정민(진주중3-5), 김성익(대야중3-1), 전정식(진주여중2-3), 박준혁(동명중3-3), 손준영(강해여중3-2), 박학태(문산중1-8)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학생이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독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디자이너의 모든 것!
노는아이!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견적까지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포스터 / 전단 / 명함 / 스티커 / 리플렛 / 팜플렛 / 봉투 / 허수막 / 배너 / 쿠폰 / 메뉴판 / 간판 / 카페 / 블로그 / 홈페이지 디자인 / 로고제작(CI·BI) / 파워포인트제작

PLAYi
PLAY/COMMUNICATION

플레이아이커뮤니케이션(노는아이)

010.9342.2580
lovepeople@daum.net

lovepeople@daum.net



필통과 함께하
주시는 분들

이명균 이명란 이명주 이왕준 이용구 이용희 이우기 이옥남 이유정 이윤자 이윤자 이윤경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하 이인자 이재석 이재승 이재현 이정숙 이정숙 이정현 이정희 이중원 이주미 이진희 이창욱
이훈식 이민진 이혜숙 이향숙 이현미 이혜영 임갑성 임갑록 임미경 임병선 임병재 임 척 인성호 입수연 임대광 임대차 전상술 정경숙 정교은 정귀란 정기삼 정기룡 정길관 정동규 정영고 정미란 정미숙 정미영 정민정 정복근 정순금
정철하 정성령 정영화 정순민 정전태 정영문 정영문 정영학 정익환 정장현 정정현 정종근 정중태 정주용 정창교 정철호 정현웅 정형택 정현대 정형목 정재은 조경민 조남식 조미란 조복춘 조복환 조복환 조복환 조복환 조복환
조영호 조유영 조영호 조은수 조은희 조일수 조일수 조재우 조진구 조진현 조현우 조혜정 주두만 주순경 주영희 자흥근 진건희 진국호 진한기 진해일 진홍배 진희서 지명석 제우안 권규영 손남신 현운경 최보진 최희철 최희철 최희철
최상일 최신희 최성하 최현주 최유동 최윤모 최정민 최지현 최지현 최현우 최형식 추수현 탁성주 하기용 하병희 하윤지 하치산 하해경 한기민 한순필 한현도 허영무 허문보 허윤정 허정림 황선인 황규민 황성수 황수영 황희진

필통지정 배부처 | 필통은 진주시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 됩니다.

〈신안-평거동〉 아이쿱생활신협점, 진주문고, 행복중심생활, 여성민우회, 탐미서점(D-BOX), 형평기념사업회 〈상봉동〉 문학당서점, 형설서점 〈시내권〉 아름다운가게, 대양서적, YMCA, 서경방송, 다원, 죽향 〈철암-강남동〉 커피포스트, 동훈서점, 안커페, 몽클, 단디커피, 모두의아파트, 소문나서점 〈동동〉 진양서적, YWCA, 달팽이 도서관, 드림문고, 학문서점, 마하도서관 〈호탄동〉 진주시미디어센터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